

Start-up Trend Report 2025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Contents

Part.1

조사 개요

Part.2

조사 결과 요약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Part.1

조사 개요

조사 설계

조사 명칭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 인식 및 현실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됨	
조사 대상	<div> <div> 1) 창업자 200명 대상 :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div> <div> 2) 스타트업 재직자 200명 대상 :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재직자 </div> <div> 3) 대기업 재직자 200명 대상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div> <div> 4) 취업준비생 200명 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div> </div> <div> 총 800명 </div>	
조사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02일	

2025년 조사의 특징

- 특별 설문
: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의 ‘새정부 정책 관련 인식’ 파악

Part.2

조사 결과 요약

스타트업 창업자의 생각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 평가는 54.5점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우려는 높지만, 정부 정책 드라이브와 민간 지원사업 확대로 긍정 변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또한 밝아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4.9%p 증가한 42.5%가 2026년 스타트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여,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역할 평가는 60.6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도움이 체감되는 정부 정책으로는 사업비 및 R&D 지원이 꼽히며, 추가적으로 자금/투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법/제도 개선 요구가 언급됩니다.

새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R&D 예산 확대 및 혁신 분야 집중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향후 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자금 지원과 더불어, 고른 분배를 기대합니다.

10개 중 4개의 스타트업이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네트워크/판로 확보 및 현지 시장 정보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AC·VC·CVC·창업지원센터로 블루포인트·알토스벤처스·카카오벤처스·구글스타트업캠퍼스를 각각 꼽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네이버, 공공기관 중에서는 창업진흥원(KISED)가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2023년 이후 체감 분위기 상승/회복세 지속

#정책 지원 강화 기대감에 향후 긍정 전망 확대

#자금 확보·투자 활성화·행정 절차 간소화 요구

#해외 시장 진출 시 네트워크/판로 확보 및 현지 정보 파악 어려움

스타트업 재직자의 생각

스타트업 재직자들은 스타트업을 '혁신/창의적이고 젊은 조직'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불투명한 조직'이라는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58%가 여전히 위축 상태라고 평가하지만, 전년 대비 3%p 감소하며 완화 추세가 관찰됩니다.

근무 만족도는 2022년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 보상, 비전/전략, 기업 인지도 측면의 불만이 높습니다. 조직 운영의 체계성 부족과 불확실한 성장 구조가 만족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3명만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비추천 사유로는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및 체계 미흡이 주로 꼽힙니다. 추천하는 경우,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시리즈 A~B 투자 단계 추천이 높습니다.

향후 이직 의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선호가 뚜렷합니다. 대기업은 높은 재정적 보상과 복리후생, 중견기업은 워라밸 보장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스타트업 간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리즈 C 이상 안정적 단계의 스타트업 및 딥테크, 핀테크, 소프트웨어 분야로의 이동 희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5명은 최근 1년 내 창업을 고려했으며, 특히 딥테크, 광고/마케팅 분야의 창업 관심도가 증가했습니다.

#혁신/창의성 인식 유지되나 불안정성 인식도 병존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완화

#근무 만족도 3년 연속 하락, 재정적 보상·체계 미흡 주요 요인

#대기업·중견기업 선호, 스타트업 간 이동 시 안정적인 시리즈C 이상 선호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대기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젊고 새로운' 이미지에서 '혁신/창의적, 활기찬 조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젊음 중심의 문화가 아닌, 창의성과 에너지 중심의 조직으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18%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워라밸 보장, 조직문화 측면 매력 인식은 전년 대비 강화되었습니다. 시리즈 C 이상 안정적 스타트업을 선호하며, 딥테크,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전히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워라밸 비보장, 낮은 보상 수준이 주요하게 꼽힙니다.

대기업 재직자의 절반 정도가 최근 1년 내 창업을 고려했으며, 헬스케어/바이오, 교육, 모빌리티, 부동산/프롭테크 분야에 대한 창업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 '토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은 스타트업 1위로 꼽혔습니다.

#스타트업 인식, '젊음'에서 '혁신·활력' 중심으로 전환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 18%, 안정적 스타트업 선호

#헬스케어·교육·모빌리티·프롭테크 창업 관심 증가

취업 준비생의 생각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여전히 '젊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인식되지만, '젊은/새로운' 이미지는 감소하고, '혁신/창의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취업준비생의 45%가 최근 1년 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했으며, 14%가 실제로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커리어 개발 가능성, 재정적 보상, 조직 비전 측면의 기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시리즈 A~B 단계 스타트업 선호가 높으며, 콘텐츠/미디어 분야 선호가 가장 높습니다. 전년 대비 패션/뷰티, 광고/마케팅, 금융/핀테크/블록체인, 헬스케어/바이오, 게임 분야 취업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측면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46%는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농식품, 이커머스/유통, 콘텐츠/미디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이 궁금한 스타트업으로는 '토스'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젊은/새로운' 감소, '혁신/창의적' 이미지 강화

#45%가 스타트업 취업 고려, 커리어 성장·보상 기대 확대

#시리즈 A~B 단계 스타트업 취업 선호

#농식품·이커머스·콘텐츠/미디어 중심 창업 관심 지속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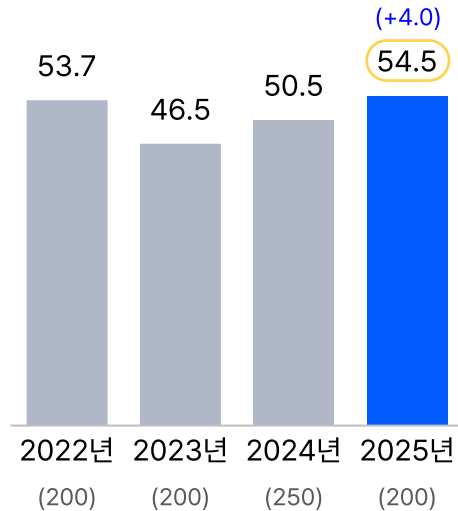
창업자 체감 스타트업 분위기는 2년 연속 상승/회복세이며, 정책 드라이브 및 민간 지원사업 증가로 긍정 변화 인식이 확대됨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는 54.5점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 변화 인식이 긍정보다 높지만, 정부/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등으로 긍정 변화 인식이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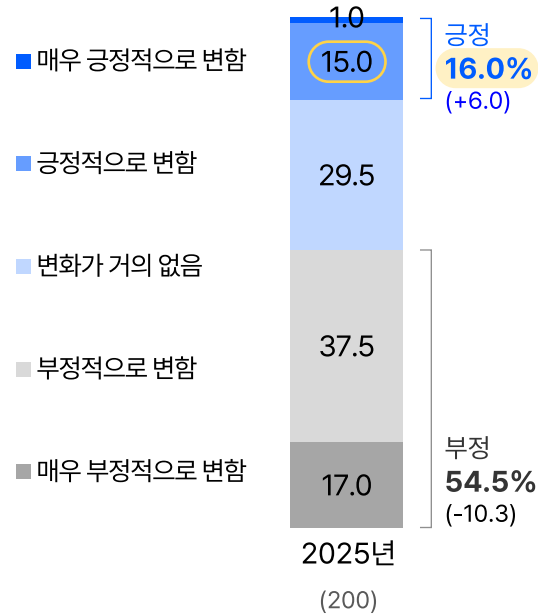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단위 : 점)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이유

긍정
이유

- 1위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53.1%)
- 2위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43.8%)
- 3위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40.6%)
- 4위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8.1%)

부정
이유

- 1위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50.0%)
- 2위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42.3%)
- 3위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32.1%)
- 4위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28.0%)

[Base: 창업자 (n=200) / 긍정 응답자 (n=32) / 부정 응답자 (n=168),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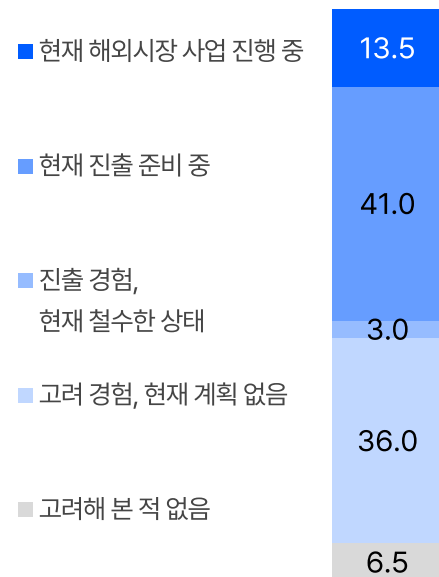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10개 중 4개의 스타트업이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네트워크/판로 확보 및 현지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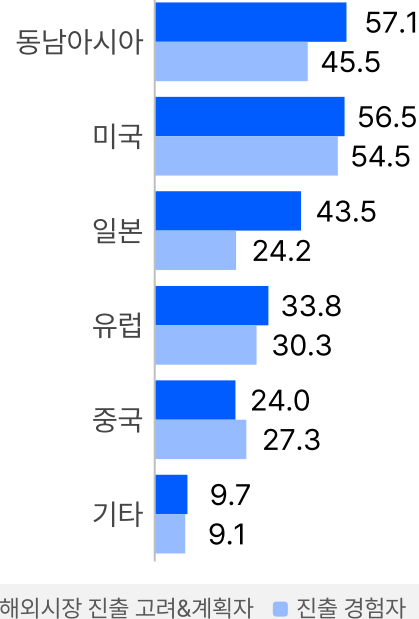
조사에 응한 창업자의 41%가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동남아시아, 일본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보,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 현지 시장 정보 및 법/정책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진출/고려 해외 지역



해외 진출 관련 어려움



[Base: 창업자 (n=200) / 해외시장 진출 고려&계획자 (n=154) / 해외시장 진출 경험자 (n=33), Unit : %]

선호하는/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인 기관 및 기업

‘블루포인트’, ‘알토스벤처스’, ‘카카오벤처스’, ‘구글스타트업캠퍼스’가 창업자가 꼽은 각 분야 선호 1위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사기업은 ‘네이버’, 공공기관은 ‘창업진흥원(KISED)’으로 인식

민간 액셀러레이터 중 ‘블루포인트’, 벤처캐피탈 중 ‘알토스벤처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중 ‘카카오벤처스’를 가장 많은 창업자가 선호합니다.

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는 ‘구글스타트업캠퍼스’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창업진흥원(KISED), 창조경제혁신센터(CCEI)가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호 AC/VC/CVC/창업지원 센터 1+2+3순위

	민간 엑셀러레이터 (AC)	벤처 캐피탈 (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활용 희망 창업지원센터
1위	블루포인트 (21.5%)	알토스벤처스 (28.5%)	카카오벤처스 (35.0%)	구글스타트업캠퍼스 (29.5%)
2위	프라이머 (18.0%)	한국투자파트너스 (23.0%)	네이버 D2SF (26.0%)	창조경제혁신센터 (29.0%)
3위	스파크랩 (17.5%)	SBVA (전 소프트뱅크벤처스) (14.5%)	삼성벤처투자 (23.5%)	서울창업허브 (28.0%)

스타트업 지원 적극적 기관 인식 1+2+3순위

기업	공공기관
네이버 (46.5%)	창업진흥원 (KISED) (52.5%)
카카오 (34.0%)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 (36.5%)
삼성 (29.0%)	서울산업진흥원 (SBA) (29.5%)

[Base: 창업자 (n=200), Unit : %]

스타트업 생태계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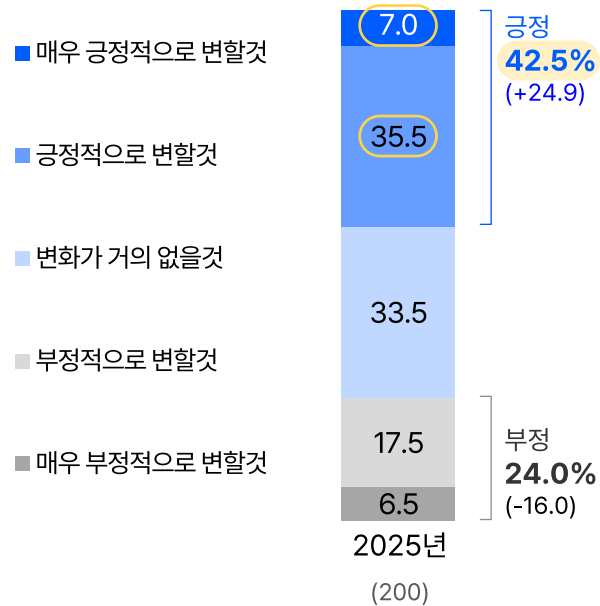
정책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향후 긍정 전망이 크게 높아졌으나, 경제위기/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병존함

창업자의 42.5%가 2026년 스타트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 대비 기대감이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기대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반면,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병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이유

긍정이유

- 1위 정부 정책 지원 강화 기대 (34.1%)
- 2위 투자 유치 활성화 기대 (15.3%)
- 3위 스타트업 관심 확대 기대 (10.6%)
- 4위 정권교체로 인한 기대감 (7.1%)
- 5위 AI 기술 투자확대/발전 기대 (5.9%)

현상유지/부정이유

- 1위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예상 (30.4%)
- 2위 투자 위축 예상 (17.4%)
- 3위 스타트업 리스크 확대, 반등/변화의 기미가 없음 (11.3%)
- 5위 글로벌 경기둔화, 편중적인 투자 기조 (5.2%)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긍정 응답자 (n=85) / 부정 응답자 (n=115), Unit : %]

정부 역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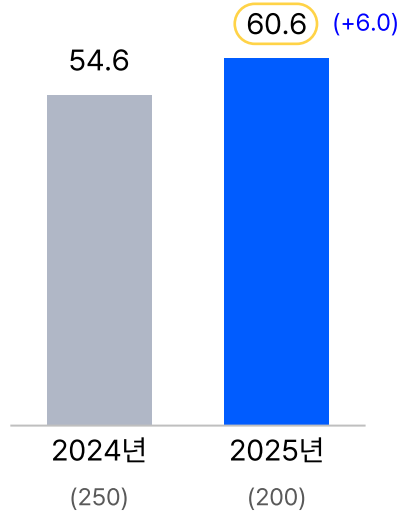
정부 시급 개선 사항으로 자금 확보/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행정절차 부담 완화 및 법/제도 유연화 필요성 언급됨

창업자들은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100점 만점에 전년 대비 6점 증가한 60.6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한 수치로 자금/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 행정절차/서류 간소화 등 절차적 부담 완화와 함께 및 법/제도 유연화/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단위 : 점)



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사항 1순위



정부 규제 완화 요구 분야

• 전반적 규제완화	11.5
• 행정절차 간소화	6.9
• 금융 규제	4.6
• 스타트업 규제 완화	4.6
• 서류간소화	4.6
• 개인정보보호법	3.4
•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3.4
•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필요	3.4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87), Unit : %]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

새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R&D 예산·혁신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음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방향성에 대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64.5%, 재직자의 54.5%가 긍정 변화를 예상하여,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대되는 정책으로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AI·딥테크 등 혁신 분야 집중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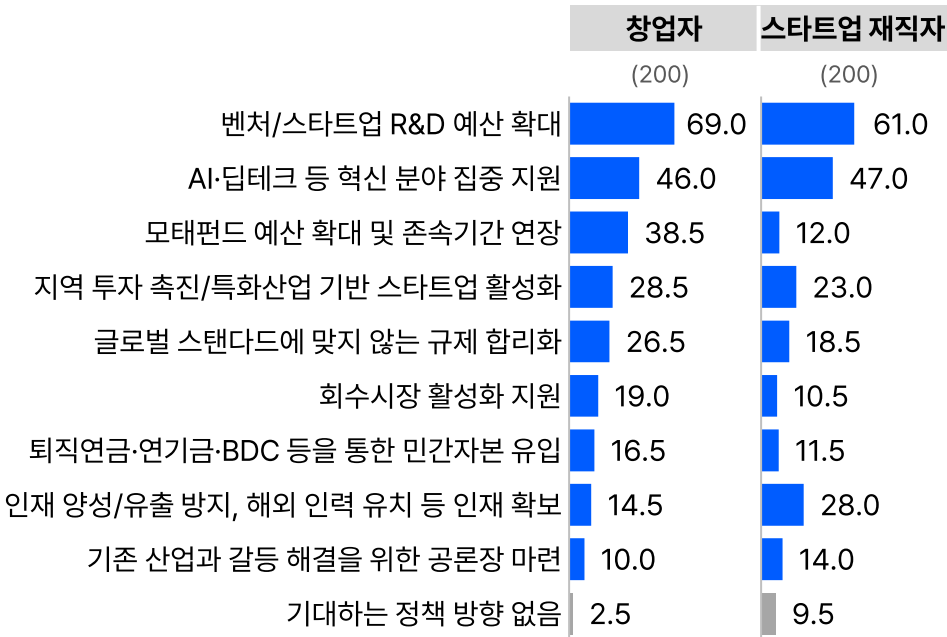
정책 방향성 설명문

2025년 6월 출범한 현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 첨단소재·기후·바이오·콘텐츠 등 혁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확대를 통한 투자 기반 강화,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지역 특화산업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



기대되는 스타트업 정책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창업자 1+2+3순위 기준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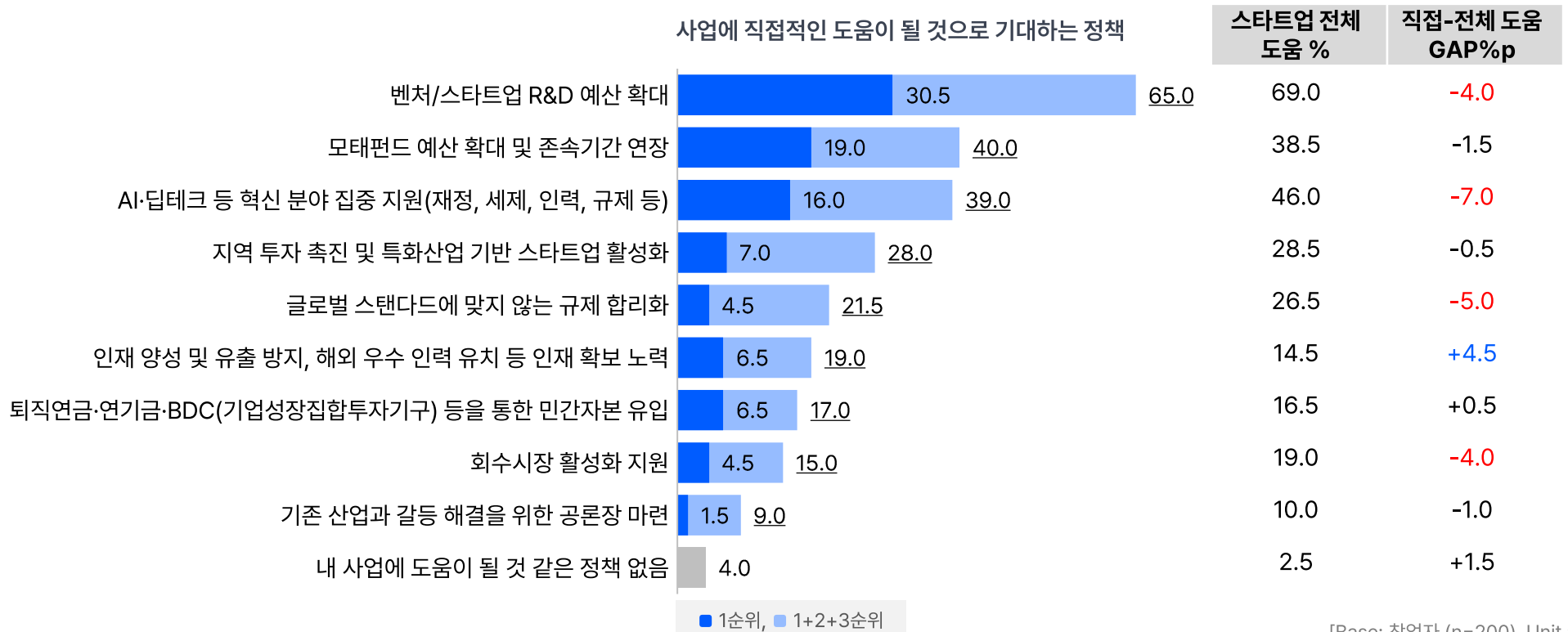
Q. 25년 6월 출범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 고려 시, 향후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그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새 정부 정책

스타트업 창업자는 R&D 예산 확대가 스타트업 운영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스타트업 창업자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가장 도움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AI·딥테크 등 혁신 분야 집중 지원이 주요 기대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정렬

Q.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에서 귀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추가 지원 요구 사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투자 활성화·자금 지원과 더불어 고른 지원 분배를 기대함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기대점으로 창업자와 재직자 모두 투자 활성화 및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된 투자 지양을 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자금 유입이 핵심 성장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기보다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창업자] 새정부 추가 지원 요구사항

• 투자 활성화(기술 등)	15.0	• 다양한 정책 지원	3.0
•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14.0	• 펀드 활성화(모태펀드 등)	3.0
•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 투자 지양	13.5	• 정부 주도 탈피/서포트 역할 충실	2.5
• 각종 규제 완화	9.5	• 스타트업 진출 실패기업 대상 지원	2.5
• 우수인재 유치	5.5	• 엄격하고 투명한 선정심사	2.0
• 실무적이고 적절한 정책 지원	4.0	• AI 산업 적극 지원	2.0
• R&D 투자예산 확대	4.0	•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	2.0
• 유연한 고용환경 필요	3.5	• 글로벌/해외판로 지원	2.0

[스타트업 재직자] 새정부 추가 지원 요구사항

•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14.0	• 엄격하고 투명한 선정심사	3.0
• 투자 활성화(기술 등)	9.5	• 급여 지원	3.0
•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 투자 지양	7.5	• 다양한 정책 지원	1.5
• 실무적이고 적절한 정책 지원	5.5	• 정부 주도 탈피/서포트 역할 충실	1.0
• 각종 규제 완화	4.5	• 스타트업 진출 실패기업 대상 지원	1.0
• R&D 투자예산 확대	4.5	• AI 산업 적극 지원	1.0
• 다양한 국책과제 활성화	3.5	•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	1.0
• 우수인재 유치	3.0	• 글로벌/해외판로 지원	0.5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창업자 2%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성장하려면, 새 정부가 어떤 점을 더 보완하거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 현황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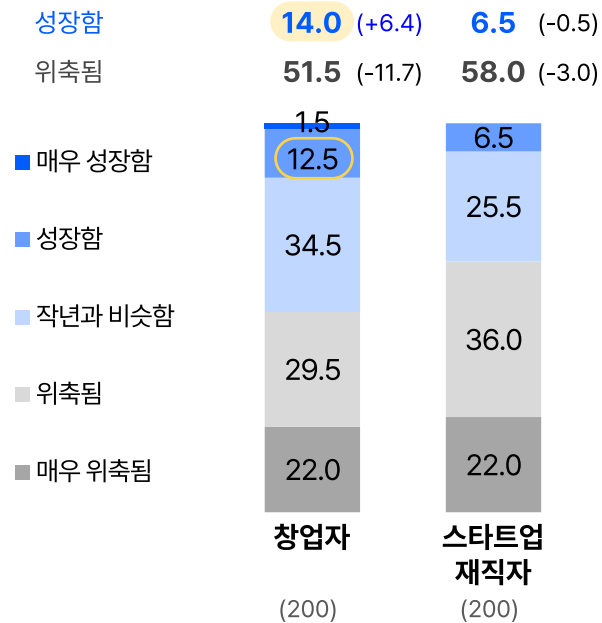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대한 인식 및 투자 유치 현황은 전년 대비 개선된 흐름을 보임

창업자의 51.5%, 스타트업 재직자의 58%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나, 2024년 대비 '위축' 응답 비중은 두 집단 모두에서 감소하며 완화 추세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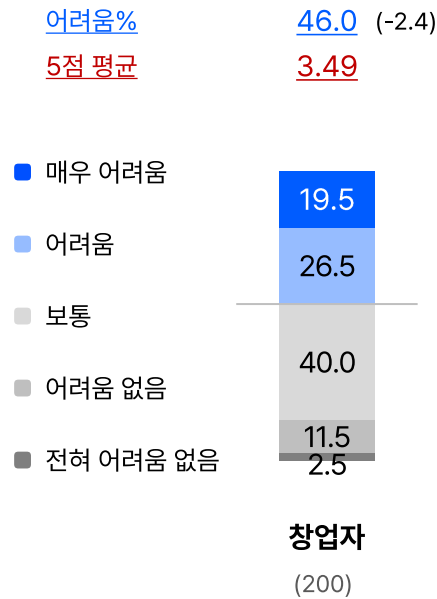
특히, 창업자가 스타트업 재직자 대비 투자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추진, 비용 절감, 매출 다각화 전략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투자 유치 계획 조정, 채용 축소,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으로 대비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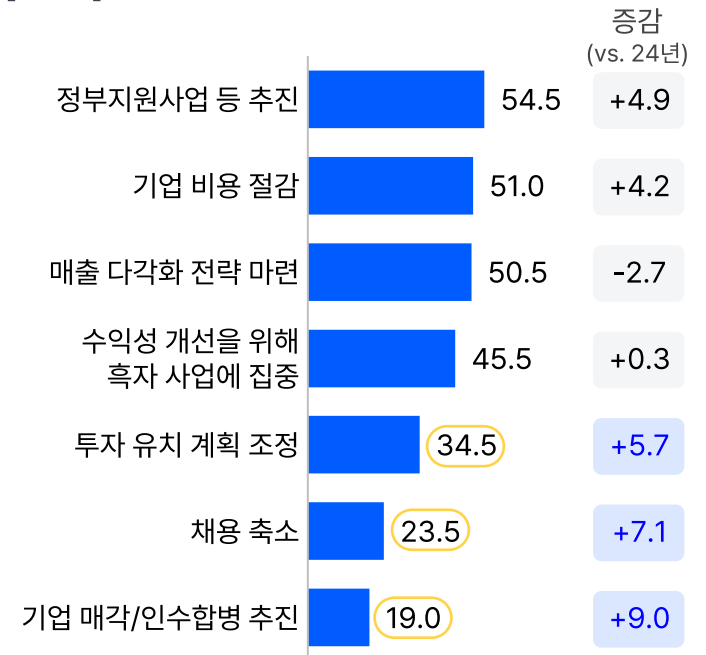
2025 스타트업 투자 시장 평가



작년 대비 투자 유치/집행 현황



[창업자]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리스크 대비책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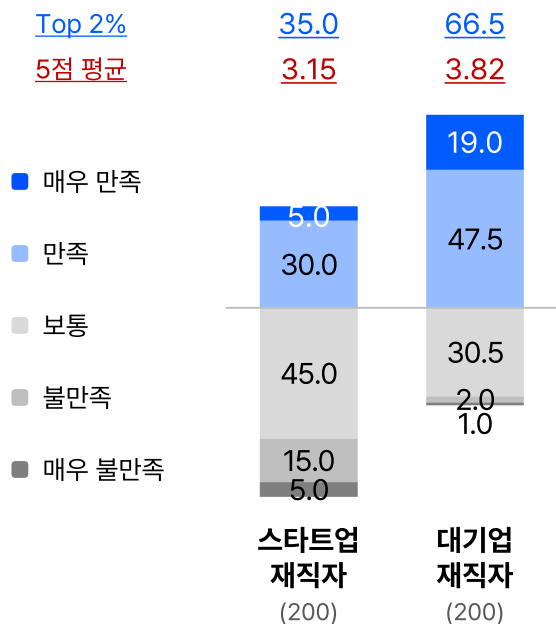
현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대기업 재직자 대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낮으며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재정적 보상·비전/전략·기업 인지도 측면의 불만이 높음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의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로 낮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불만족 사유는 주로 낮은 재정적 보상,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낮은 기업 인지도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 이유

- 1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41.5%)
- 2위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34.0%)
- 3위 워라밸의 보장 (27.5%)
- 4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5.5%)
- 5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19.0%)

불만족 이유

- 1위 낮은 재정적 보상 (37.0%)
- 2위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35.0%)
- 3위 낮은 기업 인지도 (30.0%)
- 4위 적은 복리/복지 혜택 (25.0%)
- 5위 워라밸 보장되지 않음 (24.0%)

대기업 재직자

- 복리/복지 혜택 (49.0%)
- 기업 인지도 높음 (38.5%)
- 워라밸의 보장 (38.0%)
- 높은 재정적 보상 (34.0%)
-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1.0%)

-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37.5%)
- 유연하지 못한/느린 의사결정 구조 (32.5%)
- 낮은 재정적 보상 (28.0%)
-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26.5%)
- 공정하지 않은 업무/성과 평가 (23.5%)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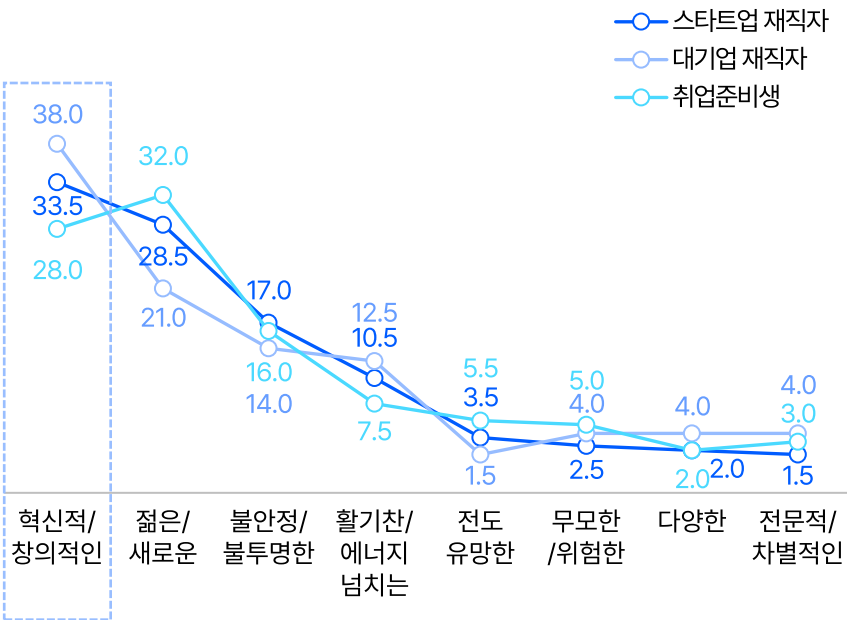
스타트업 전반 인식

모든 그룹에서 '혁신적/창의적' 이미지 증가, 가장 빠르게 성장/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기업에 뽀뽀/퓨리오사 등 AI 기업 등장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모두 스타트업을 '혁신적인/창의적인', '젊은/새로운' 이미지로 주로 인식하며, 특히 '혁신적/창의적' 이미지가 모든 그룹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 '토스'가 모든 그룹에서 1위로 꼽혔으며, 뽀뽀/퓨리오사와 같은 AI 관련 기업의 등장도 눈에 띕니다.

스타트업 연상 이미지



전년 비 모든 그룹에서 증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Base)	(200)	(200)	(200)
토스	20.0	15.0	11.0
당근	4.0	4.0	3.0
컬리	3.5	2.5	-
뽀뽀	3.5	0.5	0.5
퓨리오사	3.5	2.5	0.5
배달의민족	2.0	3.0	0.5
카카오	2.0	2.0	0.5
무신사	2.0	0.5	1.0
쿠팡	2.0	1.0	1.5
두나무	-	2.0	0.5
없다/모름/무응답	19.5	34.0	59.0

일하는 방식 알고 싶은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Base)	(200)	(200)	(200)
토스	24.5	17.5	13.0
당근	4.0	2.5	3.0
쿠팡	3.0	1.0	2.0
배달의민족	2.5	2.0	0.5
퓨리오사	2.0	1.5	0.5
네이버	1.5	2.0	0.5
카카오	0.5	2.5	2.5
무신사	0.5	-	2.0
없다/모름/무응답	29.0	51.0	61.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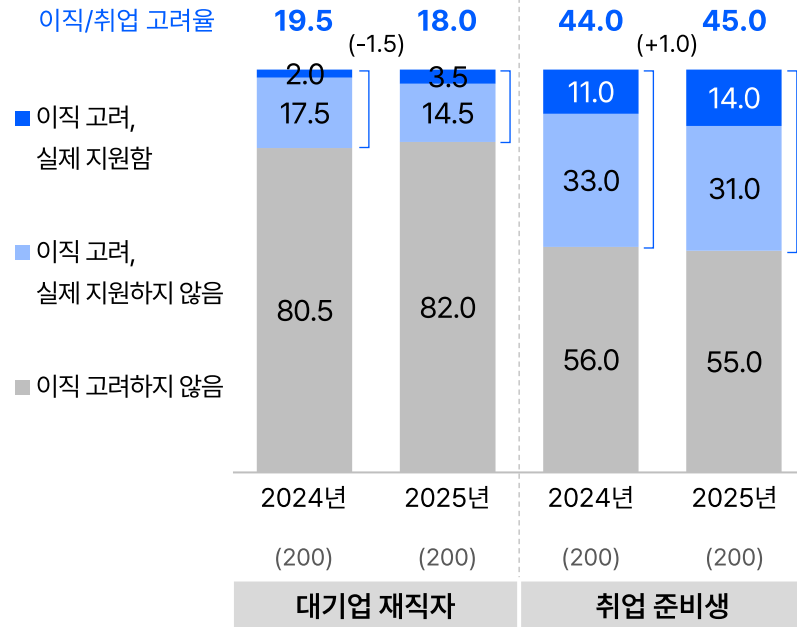
스타트업 이직/취업 관련 인식

비전/전략 불안정성, 워라밸 비보장, 낮은 보상 측면이 스타트업 이직·취업의 주요 기피 요인으로 꼽힘

대기업 재직자 18%, 취업준비생 45%가 지난 1년 내 스타트업으로 이직 및 취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이 주요한 스타트업 이직·취업의 허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 여부



^ (±) 2024년 대비 증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고려
이유

1위	높은 재정적 보상 기대 (38.9%)	워라밸 보장 (33.3%)
2위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6.1%)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 (28.9%)
3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 가능, 워라밸 보장,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30.6%)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복리/복지 혜택 (27.8%)
4위	조직 문화 선호 (22.2%)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23.3%)
5위	조직의 비전 및 전략 선호 (19.4%)	높은 재정적 보상 기대 (21.1%)

비고려
이유

1위	조직의 비전 및 전략 불안정 (39.6%)	조직의 비전 및 전략 불안정 (42.7%)
2위	워라밸 보장 불가 (36.6%)	워라밸 보장 불가 (36.4%)
3위	낮은 재정적 보상 (36.0%)	낮은 재정적 보상 (25.5%)
4위	적은 복리/복지 혜택 (23.2%)	낮은 기업 인지도 (17.3%)
5위	연봉 인상을 불만족 (20.1%)	회사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16.4%)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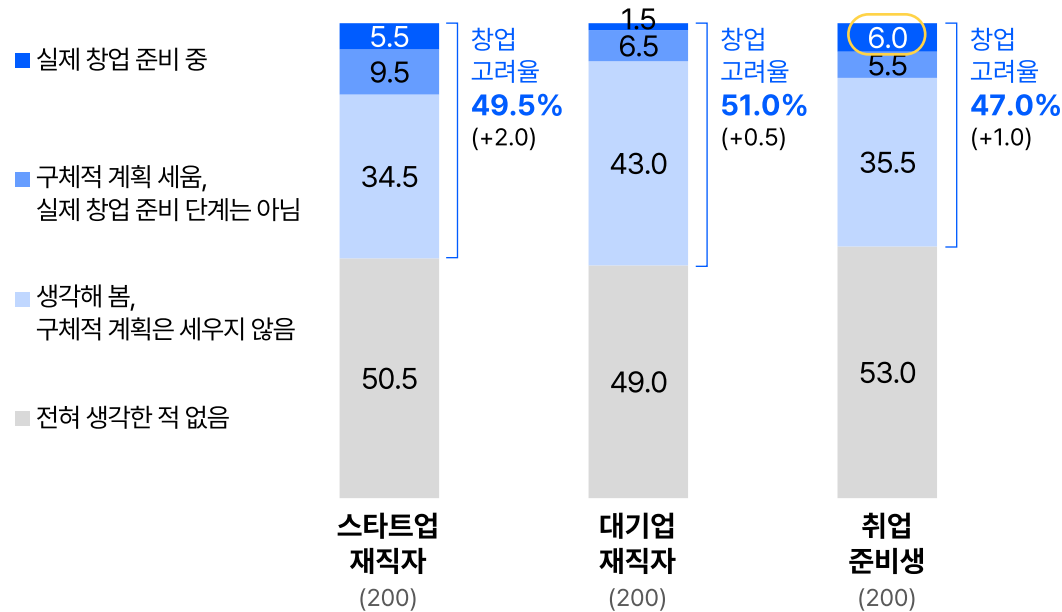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절반 가량이 최근 1년 내 창업을 고려하였으며, 전년 대비 딥테크 업종에 대한 창업 고려율이 높아짐

1년 동안 스타트업 재직자의 49.5%, 대기업 재직자의 51%, 취업 준비생의 47%가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룹에서 전년 대비 유사/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타트업 재직자는 소프트웨어/솔루션, 대기업 재직자는 이머커스/유통, 취업준비생은 콘텐츠/미디어 분야에 대한 창업 관심이 높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99)	(102)	(94)
소프트웨어/솔루션	12.1	4.9	7.4
패션/뷰티	11.1	7.8	9.6
이커머스/유통	10.1	11.8	12.8
콘텐츠/미디어	9.1	8.8	18.1
딥테크	7.1	2.9	4.3
광고/마케팅	7.1	2.0	3.2
농식품	7.1	4.9	9.6
교육	6.1	7.8	5.3
금융/핀테크/블록체인	4.0	5.9	2.1
헬스케어/바이오	4.0	7.8	3.2
부동산/프롭테크	3.0	5.9	3.2
여행/레저	2.0	6.9	3.2
모빌리티	1.0	6.9	1.1
기타	7.1	7.8	11.7

^ (±) 2024년 대비 증감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Base: 투자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대기업 재직자 (n=20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1. 창업자

규모 총 200명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연차 3년차 이하 64명(2022 ~ 2025년 창업)

4년-5년차 49명(2020 ~ 2021년 창업)

6년차 이상 87명(2019년 이전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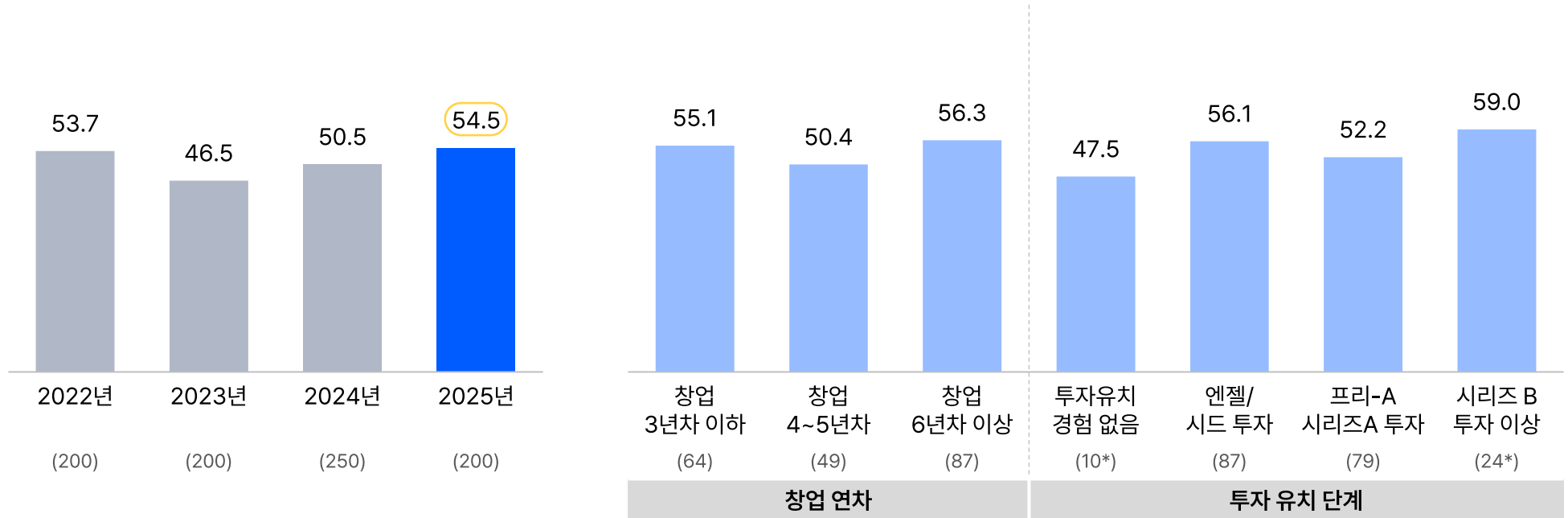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창업자 체감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54.5점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함

창업자들이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점수는 54.5점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 B 이상 단계 창업자 평가가 59점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 투자 유치 단계 : 엔젤/시드 투자 (5억원 미만), 프리-A/시리즈A 투자 (5억원~50억원 미만), 시리즈 B 투자 이상 (50억원 이상)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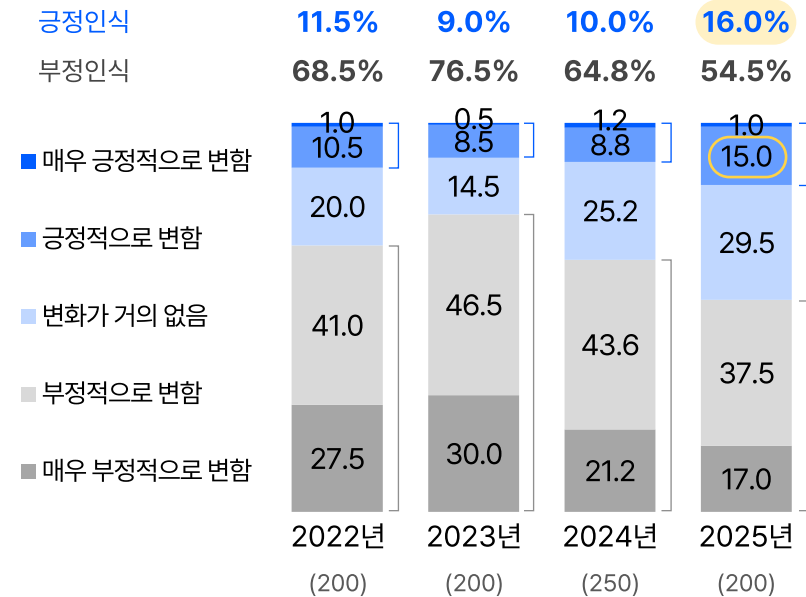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여전히 부정 인식이 높지만, 정부 정책 및 민간 지원사업 확대로 긍정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음

스타트업 분위기 변화 인식은 여전히 부정(54.5%)이 긍정(16%)보다 높지만, 2023년 이후 긍정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정 응답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지원, 신규 시장 진입 환경 저하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정책 드라이브, 민간 지원사업 증가 등은 창업자들로 하여금 회복 분위기를 체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부정 변화 인식 이유 (n=168)

-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50.0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42.3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32.1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28.0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3.8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2.6
- 저조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22.6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미흡 18.5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인위적 정책 드라이브 13.7
-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특허 등 기술력 보호 및 지원 약화 10.7

긍정 변화 인식 이유 (n=32)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53.1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43.8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40.6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8.1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21.9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18.8
-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18.8
-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특허 등 기술력 보호 및 지원 강화 15.6
- 활성화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9.4
- 대기업과의 조화로운 산업 구조 달성 9.4

[Base: 창업자 (n=200), Unit : %]

^ 부정/긍정 변화 이유: 1+2+3순위 기준

Q. 지난해(2024년)와 비교 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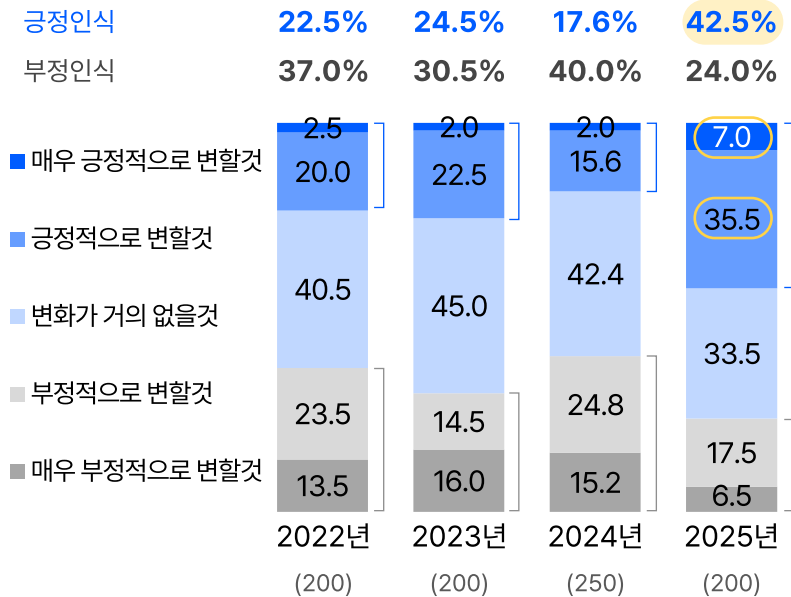
정책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향후 긍정 전망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

창업자의 42.5%가 2026년 스타트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여,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감이 확인됩니다.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기대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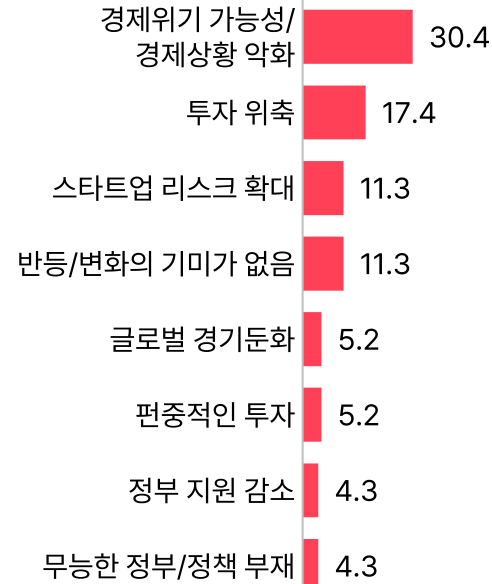
반면,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는 여전히 부정적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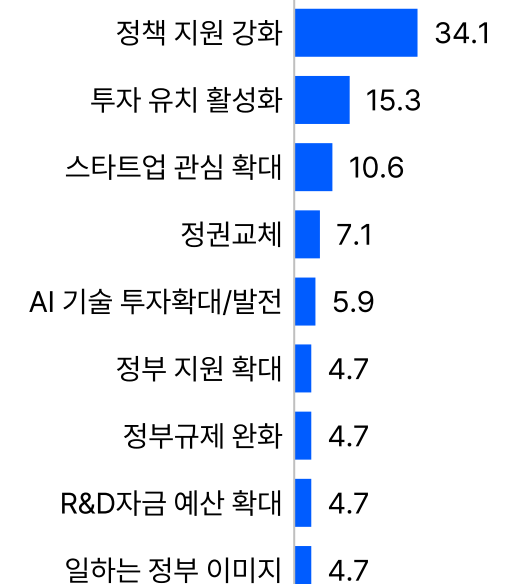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변화 없음/부정 변화 전망 이유 (n=115)



긍정 변화 전망 이유 (n=85)



[Base: 창업자 (n=200), Unit : %]

^ 부정변화 이유 3% 미만/긍정 변화 이유 4%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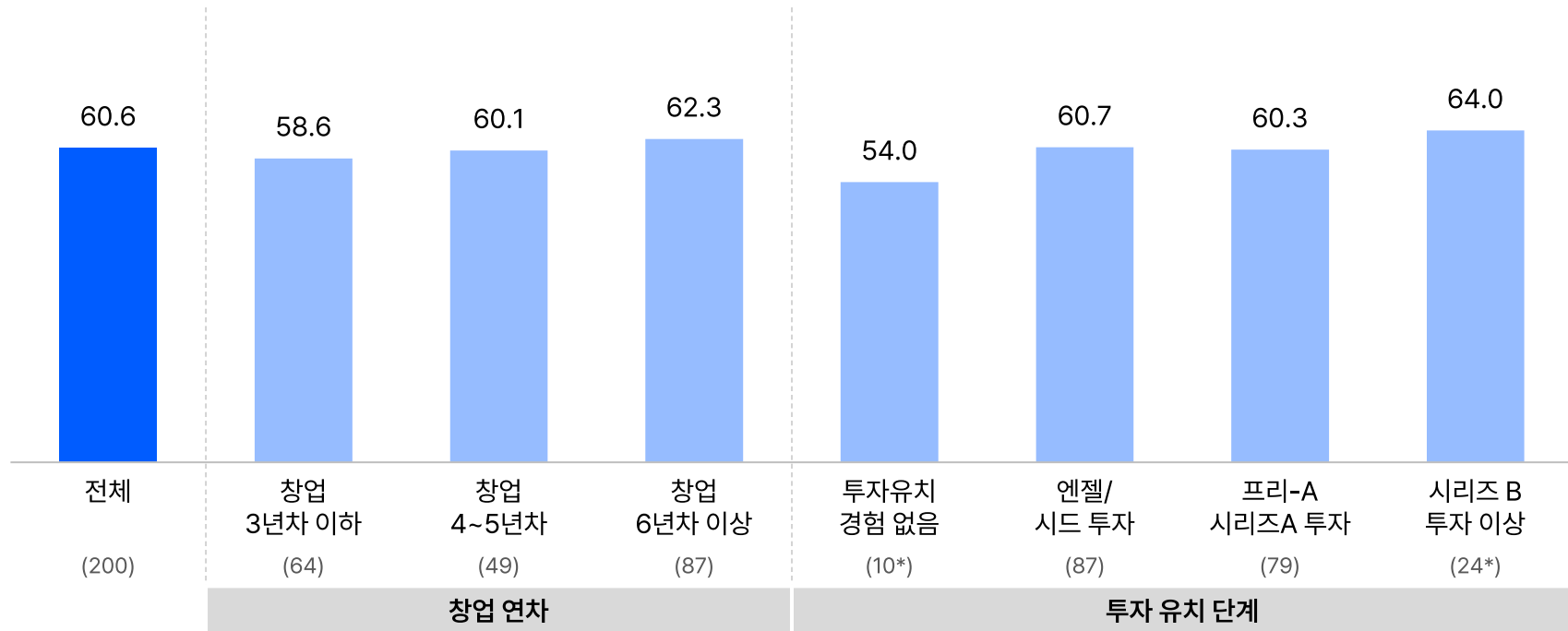
Q. 앞으로 일 년 후(2026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역할 평가는 60.6점으로, 창업 연차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함

창업자들이 평가한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역할은 100점 만점에 평균 60.6점입니다.

창업 연차가 높을수록 정부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 인식이 높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 투자 유치 단계 : 엔젤/시드 투자 (5억원 미만), 프리-A/시리즈A 투자 (5억원~50억원 미만), 시리즈 B 투자 이상 (50억원 이상)

[Base: 창업자 (n=200), Unit :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정부의 사업비 및 연구/기술개발 부문 지원 효과 체감이 높으며, 추가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함

도움이 체감되는 정부정책으로 '사업비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지원', '창업 공간 및 인프라 지원'이 주로 꼽혔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사업비 및 연구/기술개발 부문 지원 긍정 응답률이 13%p 가량 증가하며, 자금 및 R&D 지원 효과 체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 초기 자금/자본 직접 투자 등을 기대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1+2+3순위)



추가 정부 역할 기대사항

• 투자/자금 지원 확대	14.0
• 초기 자금/자본 직접 투자	13.0
• 지원 활성화	9.5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8.5
•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R&D) 지원	5.5
• 세제 지원	5.0
• 다양한 기업에 투자/지원	4.5
• 투자펀드 확대	4.0
• 유망 스타트업 지원	4.0
• 창업 공간 및 인프라 지원	3.5
• 인력/채용 지원	3.5
•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5
• 투자 유치 및 사업화 부문 지원	3.0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 기대사항 3% 미만 응답 절삭

Q.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정부가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점

정부 시급 개선점으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가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기업공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요구는 전년 대비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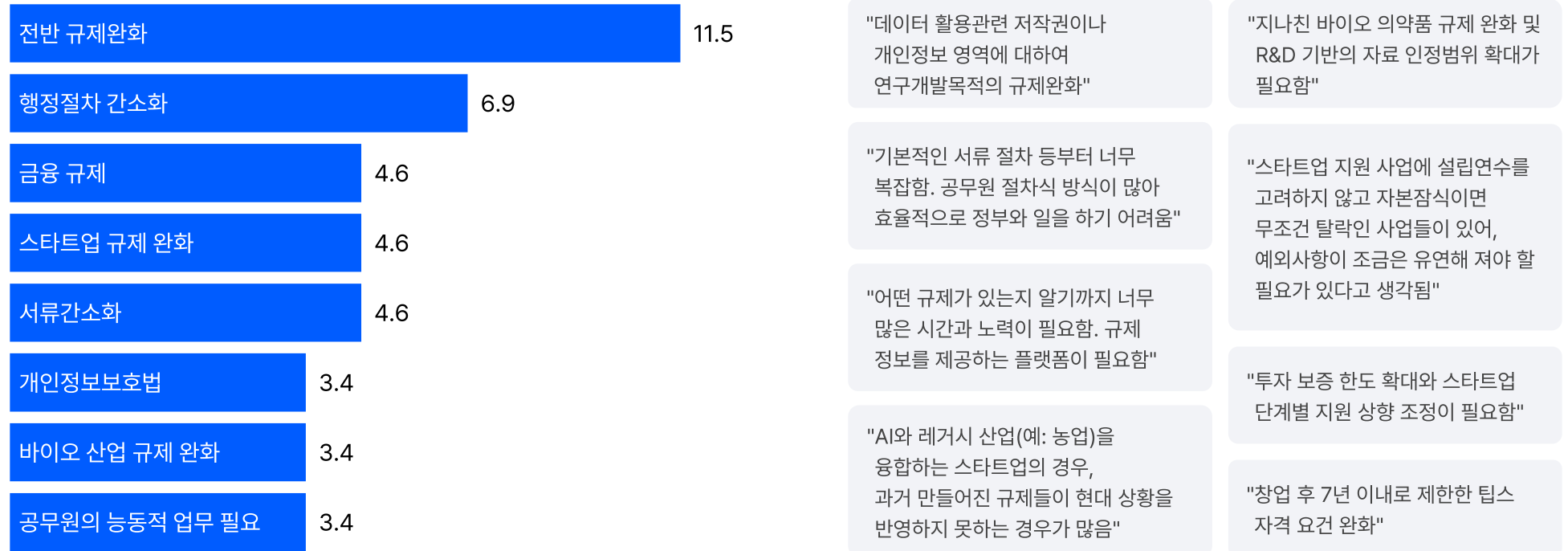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화 필요 정부 규제

행정절차·서류 간소화 등 절차 완화 요구 및 법/제도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됨

완화 필요 규제로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다수 언급되어, 창업 과정 전반에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금융 규제, 스타트업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바이오 산업 규제 등 법/제도 전반에 걸친 완화 요구가 응답되었습니다.



[Base: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87),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Q. 완화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관련 어려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야)

스타트업 창업자는 주로 자금 확보·투자·성장 전략 관련 조언을 필요로 함

스타트업 창업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주로 자금 확보, 투자, 성장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프리-A/시리즈A 투자 단계 창업자는 '해외/글로벌 진출'에 대한 조언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시드 투자	프리-A 시리즈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64)	(49)	(87)	(10*)	(87)	(79)	(24*)
자금 확보	19.5 47.5	50.0	51.0	43.7	60.0	55.2	44.3	25.0
투자 관련	19.5 44.0	45.3	46.9	41.4	30.0	43.7	48.1	37.5
성장 전략	14.0 39.0	40.6	38.8	37.9	40.0	46.0	35.4	25.0
해외/글로벌 진출	11.5 33.0	32.8	34.7	32.2	40.0	23.0	41.8	37.5
전략 로드맵	7.0 26.0	23.4	24.5	28.7	20.0	28.7	22.8	29.2
경영 전반	8.0 22.5	23.4	18.4	24.1	30.0	20.7	19.0	37.5
조직 관리	8.0 20.5	18.8	14.3	25.3	10.0	18.4	21.5	29.2
인사 관리	3.5 17.0	15.6	12.2	20.7	-	17.2	19.0	16.7
의사결정 구조/시스템	8.0 15.5	15.6	10.2	18.4	10.0	13.8	13.9	29.2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 투자 유치 단계 : 엔젤/시드 투자 (5억원 미만), 프리-A/시리즈A 투자 (5억원~50억원 미만), 시리즈 B 투자 이상 (50억원 이상)

[Base: 창업자 (n=200), Unit : %]

^ 전체 1+2+3순위 기준 Sorting / 배너 1+2+3순위 기준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31

Q. 창업하신 회사 운영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투자 유치 시 어려움

투자 유치 시 가장 큰 어려움은 '회사 가치 산정/인정(밸류에이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고 인정받는 과정(밸류에이션)'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창업 연차나 투자 단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투자 환경 전반에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시드 투자	프리-A 시리즈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64)	(49)	(87)	(10*)	(87)	(79)	(24*)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	41.0	37.5	49.0	39.1	50.0	35.6	41.8	54.2
제품 및 서비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24.5	25.0	20.4	26.4	20.0	21.8	29.1	20.8
투자자에 대한 정보 파악	13.5	15.6	12.2	12.6	20.0	18.4	8.9	8.3
투자유치 조건 협의	10.5	9.4	10.2	11.5	10.0	11.5	10.1	8.3
엄격한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	9.0	9.4	8.2	9.2	-	11.5	8.9	4.2
기타	1.5	3.1	-	1.1	-	1.1	1.3	4.2

^ 투자 유치 단계 : 엔젤/시드 투자 (5억원 미만), 프리-A/시리즈A 투자 (5억원~50억원 미만), 시리즈 B 투자 이상 (50억원 이상)

[Base: 창업자 (n=200), Unit : %]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투자 유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어려움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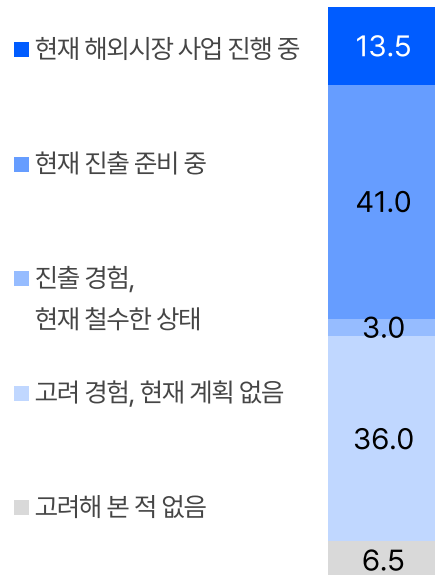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10개 중 4개의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네트워크/판로 확보 및 현지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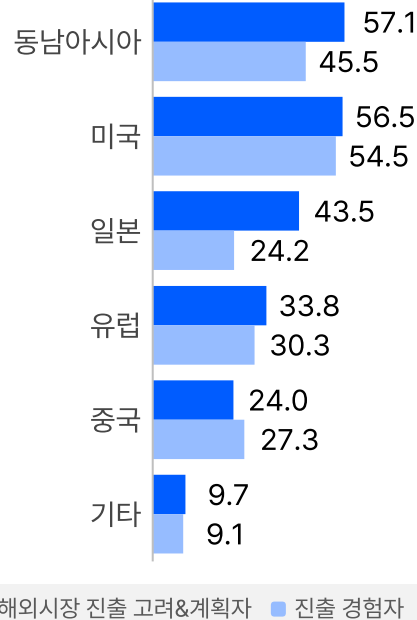
조사에 응한 창업자의 41%가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주로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보,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 현지 시장 정보 및 법/정책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진출/고려 해외 지역



해외 진출 관련 어려움



[Base: 창업자 (n=200) / 해외시장 진출 고려&계획자 (n=154) / 해외시장 진출 경험자 (n=33),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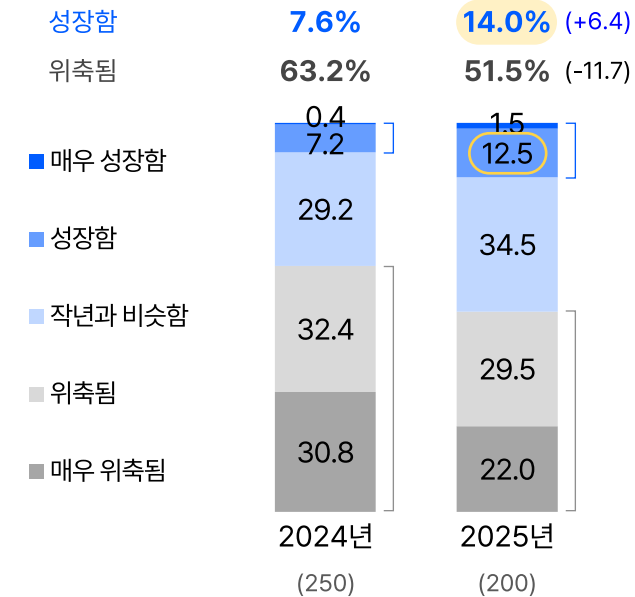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창업자가 체감하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대한 인식 및 투자 유치 현황은 전년 대비 개선된 흐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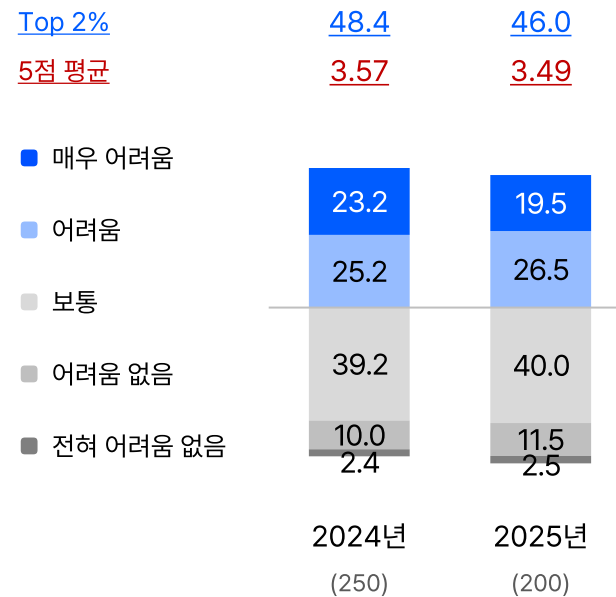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 평가는 전년 대비 큰 폭(-11.7%p)으로 감소한 반면, '성장' 응답은 증가(+6.4%p)하였으며, 투자 유치 현황 역시 작년 대비 '어려움' 응답이 감소(-2.4%p) 하였습니다.

경기 불황, 투자시장 위축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작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시장 인식



작년 대비 투자 유치 현황



작년 대비 투자 유치 어려워진 이유 (n=92)

투자시장 상황	53.3
• 투자시장 위축	22.8
• 특정 분야로만 투자금 쏠림 현상	13.0
• 소극적 투자	7.6
• 자금시장 경색	6.5
경기/시장 상황	45.7
• 경기 불황	30.4
• 불확실성 증가	6.5
정책	10.9
• 정부 정책 변화	4.3
• R&D 예산 감소	4.3
글로벌 환경	7.6
• 글로벌 경기 둔화	7.6
분야 선호도&관심	7.6
• 해당 시장 선호도 하락	5.4
기업 운영 상황	7.6
• 매출감소	4.3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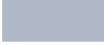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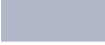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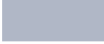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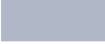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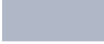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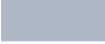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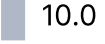

^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이유 4%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해(2024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창업하신 기업의 투자유치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투자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추진, 비용 절감, 매출 다각화 전략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음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 리스트에 대비하여,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기업 비용 절감',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계획 조정', '채용 축소',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비중이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전체	2024년 전체	2025년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시드 투자	프리-A 시리즈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250)	(200)	(64)	(49)	(87)	(10*)	(87)	(79)	(24*)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43.0	 49.6	 54.5	60.9	44.9	55.2	60.0	66.7	49.4	25.0
기업 비용 절감	 46.5	 46.8	 51.0	57.8	40.8	50.6	50.0	47.1	50.6	50.0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54.0	 53.2	 50.5	54.7	46.9	37.9	70.0	48.3	45.6	45.8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	 51.0	 45.2	 45.5	45.3	65.3	47.1	50.0	44.8	53.2	58.3
투자 유치 계획 조정	 34.0	 28.8	 34.5	42.2	38.8	26.4	30.0	42.5	27.8	29.2
채용 축소	 20.5	 16.4	 23.5	14.1	26.5	28.7	10.0	20.7	27.8	25.0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13.5	 10.0	 19.0	3.1	12.2	34.5	-	13.8	25.3	25.0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 2025년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1+2+3순위 %]

^ 투자 유치 단계 : 엔젤/시드 투자 (5억원 미만), 프리-A/시리즈A 투자 (5억원~50억원 미만), 시리즈 B 투자 이상 (50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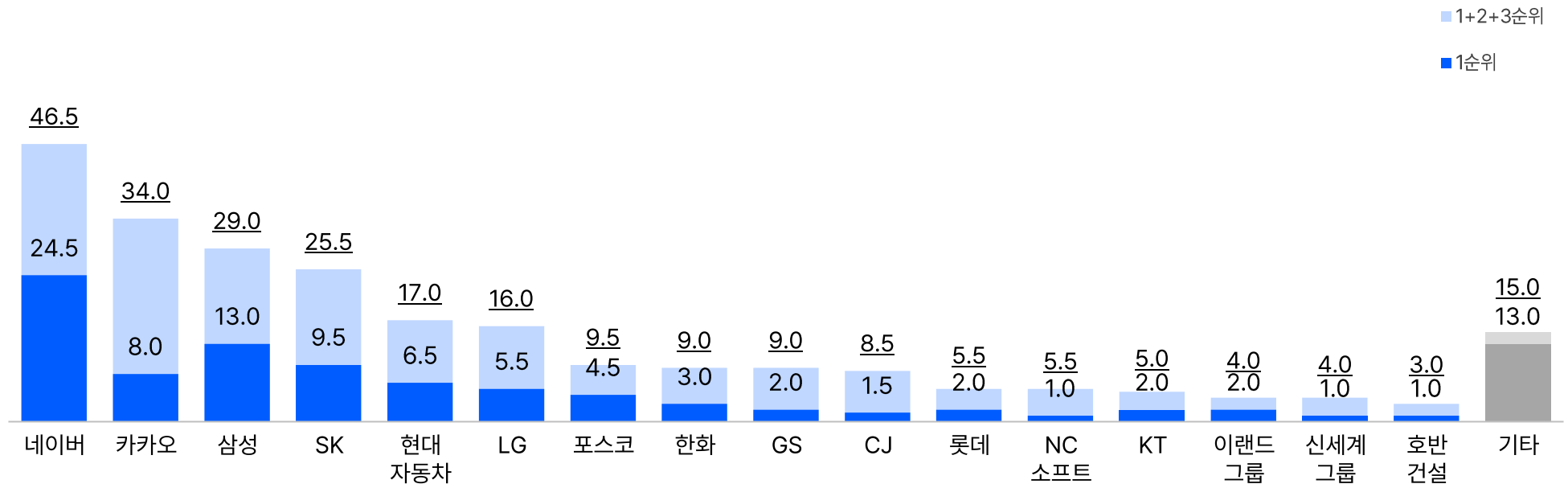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Q. '벤처투자 시장 흑한기'로 인해 발생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 이신가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기업 인식

창업자들이 꿈은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인 주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네이버'이며, 이어 카카오, 삼성, SK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1+2+3순위 기준)



[Base: 창업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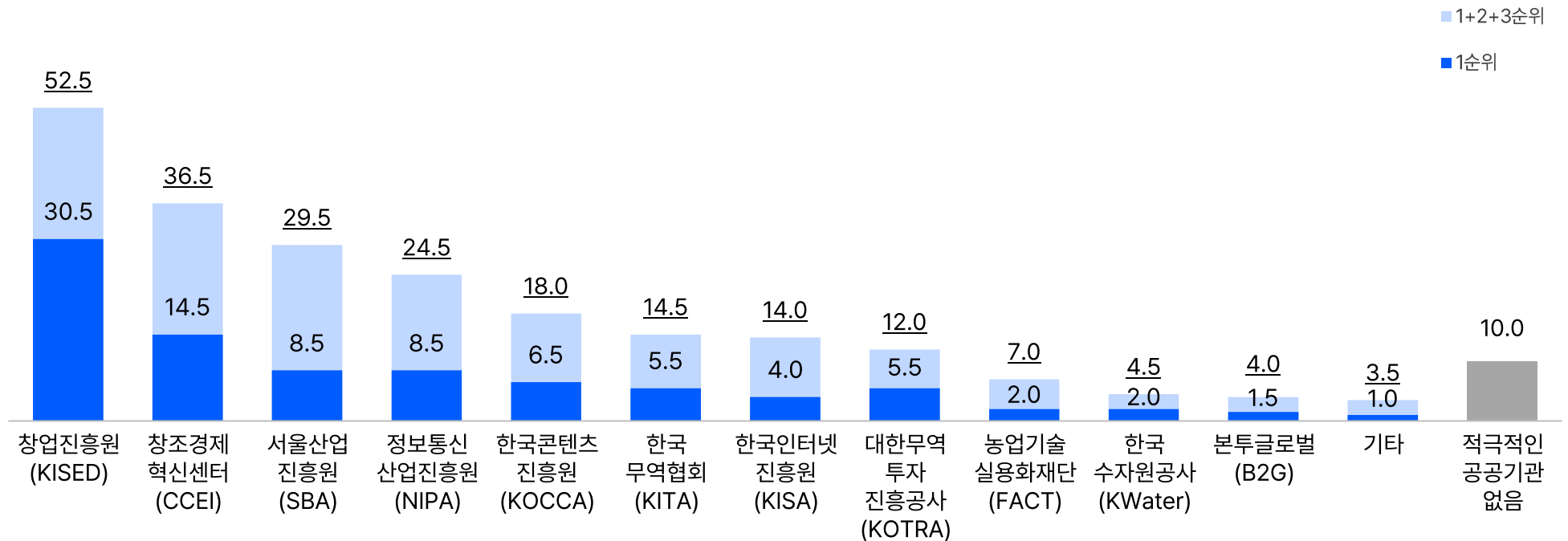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공공기관 인식

창업진흥원(KISED), 창조경제혁신센터(CCEI), 서울산업진흥원(SB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 인식됨

‘창업진흥원’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 꼽혔습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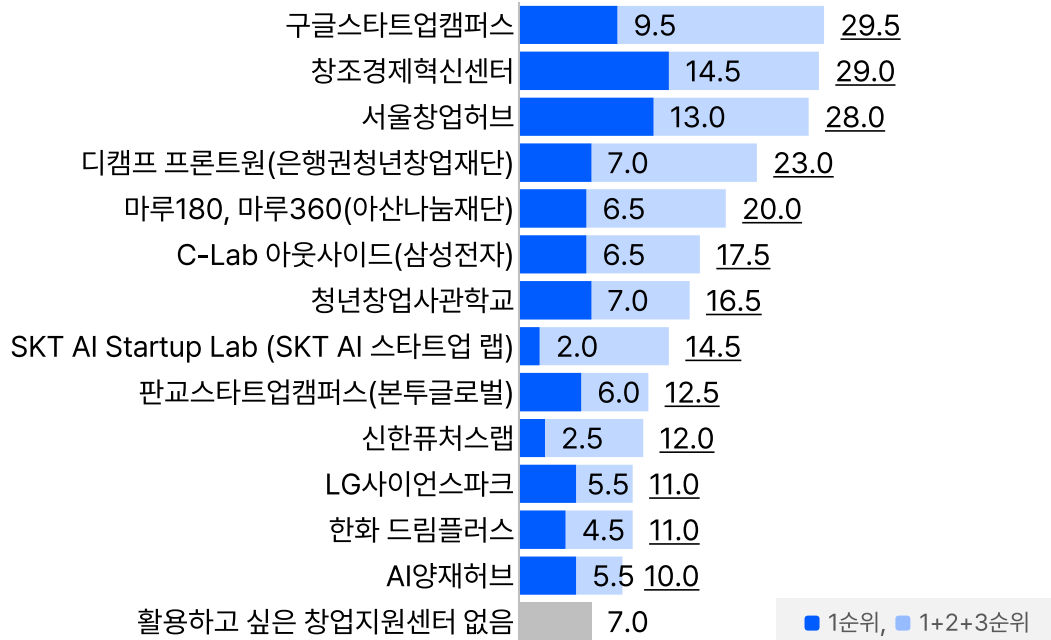
활용 희망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선호 요인으로 사무 공간/인프라 제공, 투자 유치 및 네트워킹 형성 지원 측면이 주로 꼽힘

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는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가 주로 꼽힙니다.

사무 공간 및 인프라 제공, 투자 유치 지원,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측면이 창업지원센터의 주요한 선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 희망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선호 요인 (n=186)

- 사무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38.2
- 투자 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34.4
-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해줘서 32.3
-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29.6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연계를 지원해줘서 24.7
- 평판 및 브랜드를 통한 후광 효과가 있어서 24.7
-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이 가능해서 23.7
- 중견·대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연계가 가능해서 19.9
- 창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16.7
- 기타 5.4

[Base: 창업자 (n=200) / 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창업자 (n=186), Unit : %]

^ 활용 희망 창업지원 센터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 가장 활용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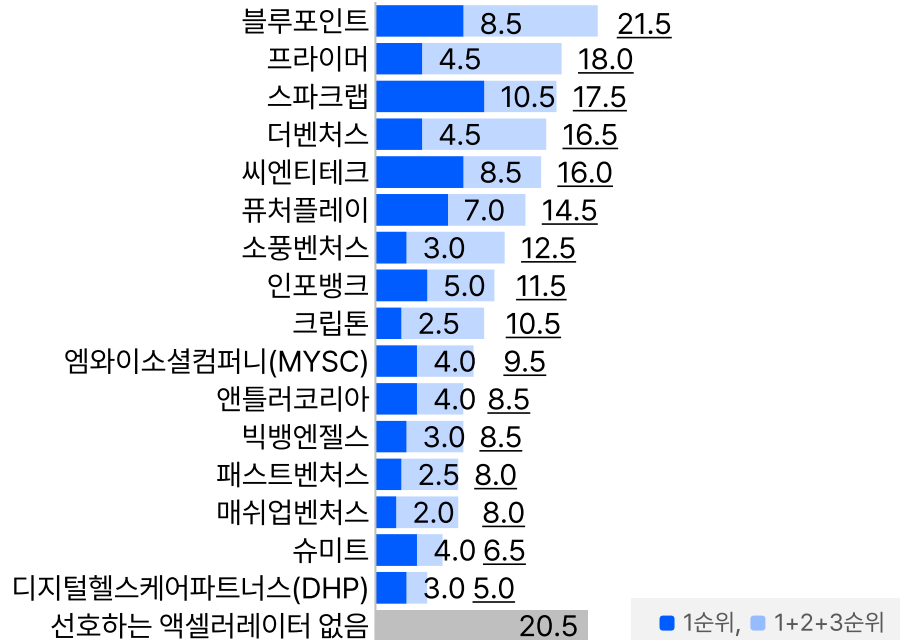
선호 민간 액셀러레이터(AC)

네트워킹 지원, 평판/브랜드, 투자자 네트워크/후속 투자 연계 지원이 좋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선호함

선호 민간 액셀러레이터로 블루포인트, 프라이머, 스파크랩, 더벤처스, 씨엔티테크 등이 응답되었습니다.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평판/브랜드 후광 효과, 투자자 네트워크/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하는 AC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선호 민간 액셀러레이터(AC)



민간 액셀러레이터(AC) 선호 요인 (n=159)

•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해줘서	42.8
• 평판 및 브랜드를 통한 후광 효과가 있어서	38.4
• 투자자 네트워크 연결 및 후속 투자 연계를 지원해줘서	33.3
• 투자 철학이 우리 기업과 부합해서	29.6
• 시장 검증 및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28.3
•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23.3
• 단기간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20.8
• 글로벌 진출 및 해외 투자자·파트너 연결을 지원해줘서	17.0
• 기업·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연계를 지원해줘서	9.4
• 기타	1.9

[Base: 창업자 (n=200) / 선호 액셀러레이터(AC)가 있는 창업자 (n=159), Unit : %]

^ 선호 민간 액셀러레이터 1+2+3순위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는 어디인가요? /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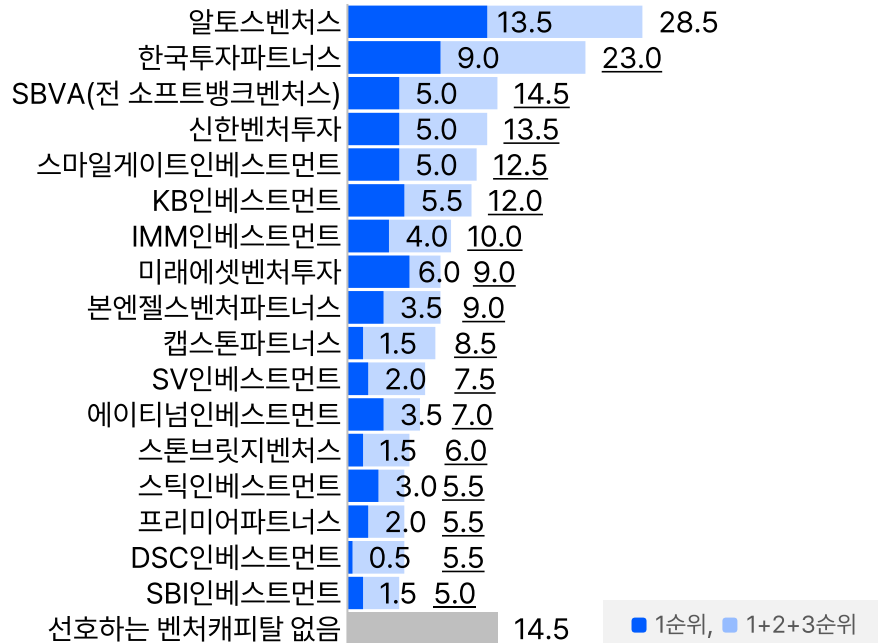
선호 벤처캐피탈(VC)

벤처캐피탈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는 요소는 '평판/브랜드를 통한 후광 효과'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로 알토스벤처스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벤처캐피탈 선호 요인으로 과반 이상이 '평판/브랜드 후광 효과'를 꼽았으며, 이어 네트워크 연결 지원, 후속 투자/공동 투자 연계 지원 등이 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선호 벤처캐피탈(VC)



벤처캐피탈(VC) 선호 요인 (n=171)

- 평판 및 브랜드를 통한 후광 효과가 있어서 54.4
- 투자자, 전문가, 글로벌 VC 등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해줘서 43.3
- 후속 투자 및 공동 투자 연계를 지원해줘서 39.2
- IPO, M&A 등 엑시트 전략을 지원해줘서 28.1
- 투자 후 경영 지원(PR, HR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27.5
- 특정 산업·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어서 24.0
- 투자 철학이 우리 기업과 부합해서 19.9
- 기타 3.5

[Base: 창업자 (n=200) / 선호 벤처캐피탈(VC)가 있는 창업자 (n=171), Unit : %]

^ 선호 벤처캐피탈 1+2+3순위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VC)은 어디인가요? /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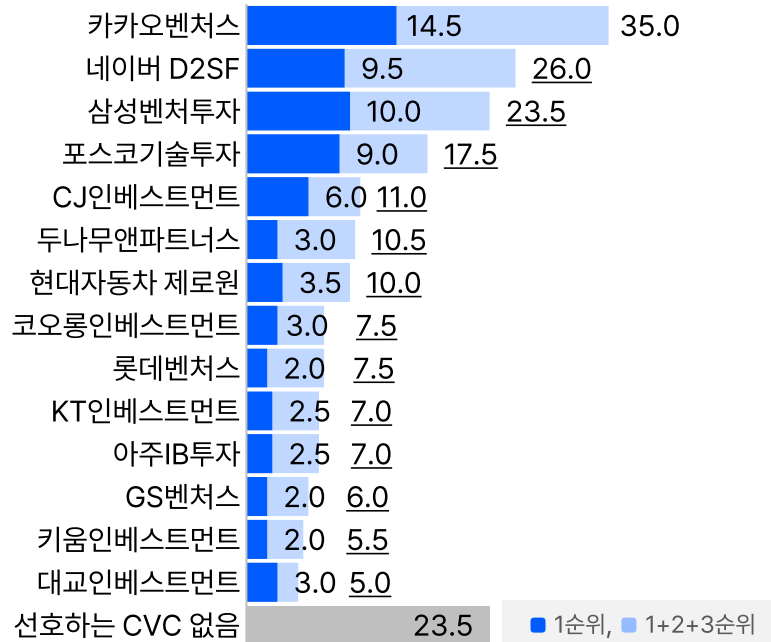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는 주로 평판/브랜드 통한 후광 효과, 계열사 협력 기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기대함

가장 많은 창업자가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은 카카오벤처스였으며, 이어 네이버 D2SF, 삼성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도 '평판/브랜드를 통한 후광 효과'를 가장 기대하며, 스타트업-계열사간 사업 협력 기회 제공,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지원 등이 주요한 선호 요인으로 꼽힙니다.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선호 요인 (n=153)

• 평판 및 브랜드를 통한 후광 효과가 있어서	41.2
• 스타트업과 계열사 간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37.3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해줘서	34.6
• 후속 투자 및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줘서	32.0
• 계열사의 기술·인프라 활용을 지원해줘서	28.1
• 투자한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내재화 가능성을 검토해서	27.5
•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활동을 강화할 수 있어서	21.6
• 투자 철학이 우리 기업과 부합해서	17.6
• 기타	2.0

[Base: 창업자 (n=200) /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가 있는 창업자 (n=153), Unit : %]

^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어디인가요? /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2. 스타트업 재직자

규모 총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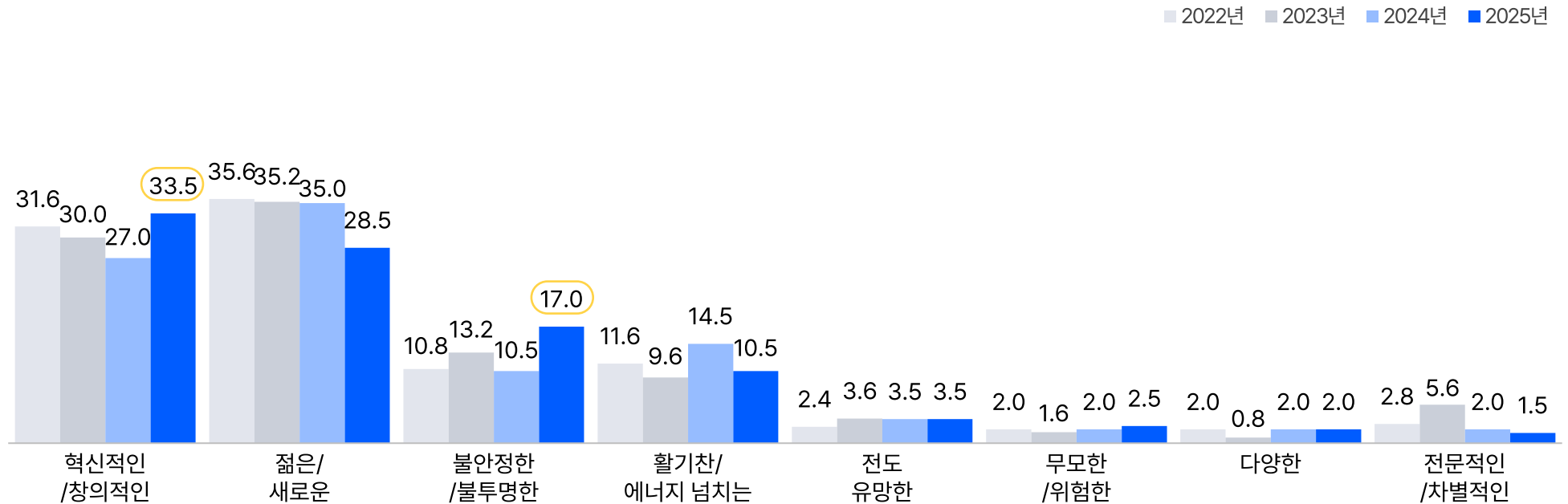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스타트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의 혁신성/창의성, 젊은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음

스타트업 재직자들에게 스타트업은 주로 '혁신적인/창의적인', '젊은/새로운'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국내 스타트업 인식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자,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 '토스'가 압도적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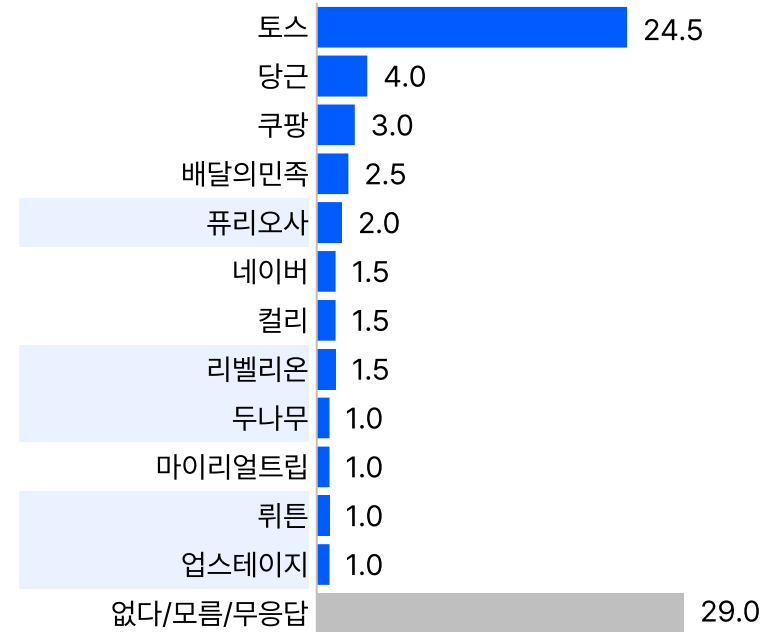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가 꼽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 모두에서 토스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뽀빠, 퓨리오사, 리벨리온, 업스테이지와 두나무 같은 AI 또는 핀테크 관련 기업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빠르게 성장 1.5% / 일하는 방식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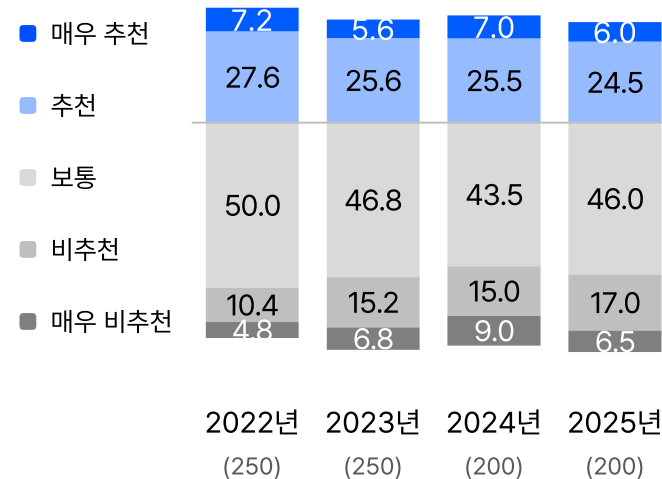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3명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시리즈 A~B 투자 단계 추천이 높음

스타트업 재직자의 30.5%가 스타트업 근무를 주변에 추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추천 의향자의 44.3%는 일정 수준의 체계와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을 추천합니다.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Top 2% 34.8 31.2 32.5 30.5
5점 평균 3.22 3.08 3.07 3.07



추천 스타트업 단계 (n=61)

-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단계)
-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 투자 단계)
- 소, 중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B 투자 단계)
-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



해당 단계 스타트업 추천 이유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단계)

"자기 힘으로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음"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 투자 단계)

"막 성장세를 타는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조금씩 무언가를 하는 느낌이 드는 시기이며,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동기부여도 잘 될 것 같고 제로투원을 경험하기 좋은 환경임"

소, 중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B 투자 단계)

"어느 정도의 체계와 안정성을 갖추면서 스타트업의 속도가 있고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시점임"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

"회사가 빠르게 커지고 도전할 기회가 많음"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응답자 (n=61), Unit : %]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에서의 근무 기회를 추천하시나요?

스타트업 근무 비추천 의향 이유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및 체계 미흡이 지적됨

반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 의향이 보통인 이유로는 주로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Base: 스타트업 근무 보통/비추천 응답자 (n=139),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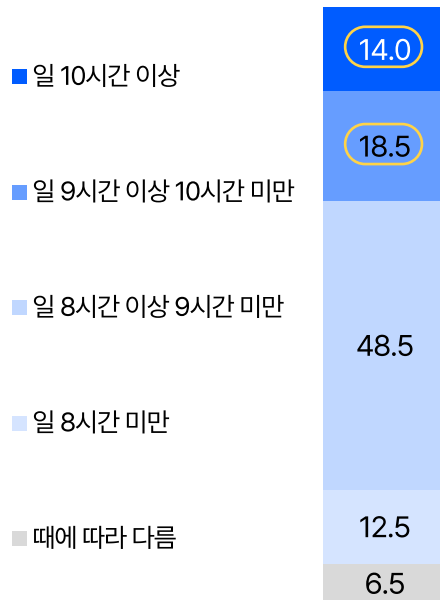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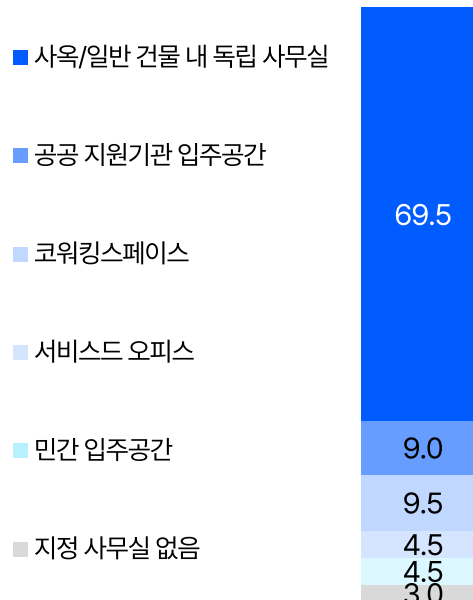
자율 복장, 식대/간식 지원, 탄력근무가 스타트업의 주요 복지/근무환경으로 꼽힘

스타트업 재직자의 48.5%는 하루에 8~9시간 근무하며, 근무 공간은 주로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복지/근무 환경으로 자율 복장, 식대/간식 지원, 탄력근무가 과반 이상 꼽히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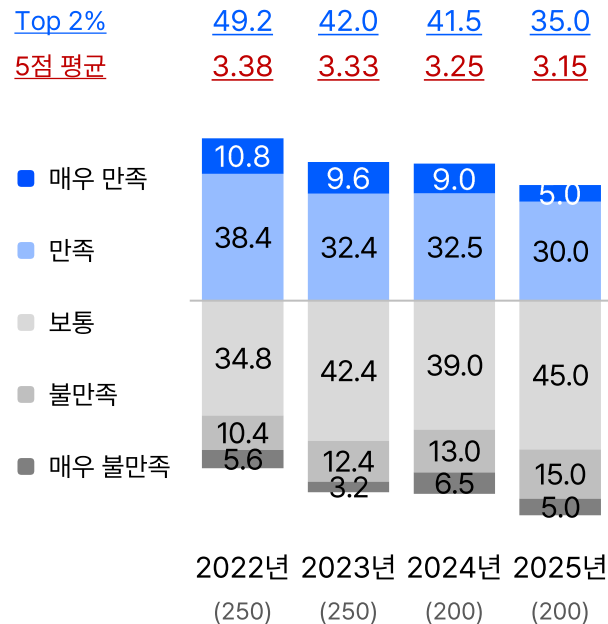
Q. 재직중인 스타트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전반적 근무 만족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는 지속 하락세이며, 재정적 보상·비전/전략·기업 인지도 측면의 불만이 높음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는 202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특히 전년 대비 긍정 응답 비율(Top 2%)이 6.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재정적 보상,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낮은 기업 인지도 등이 주로 언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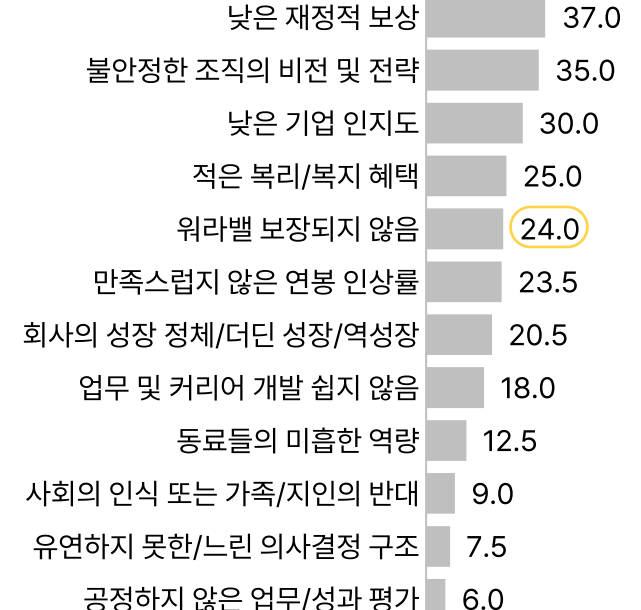
전반적 근무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불만족 요인 5% 미만 절삭

Q. 재직 중인 스타트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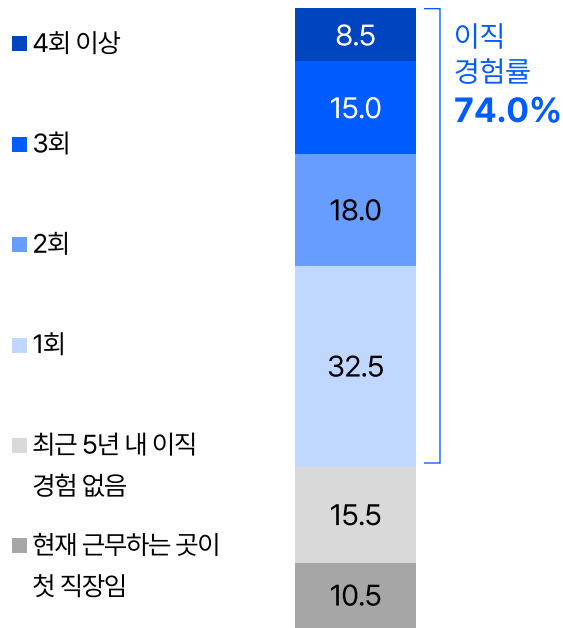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스타트업 이직 준비 과정에서 조직/팀, 보상 등 실질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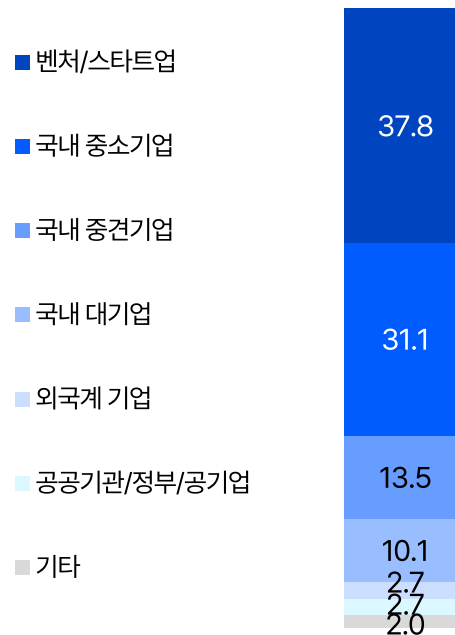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재직자의 74%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벤처/스타트업 및 국내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타트업 이직 준비 과정에서 기업 조직 문화/팀 내부 정보 탐색, 면접 준비, 금전적 보상 정보 탐색 등 주로 실질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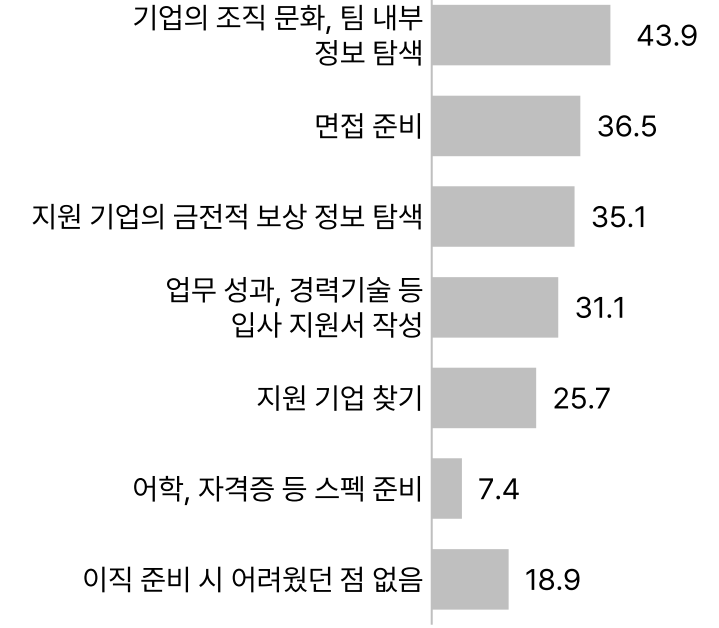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n=148)



스타트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n=148)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148),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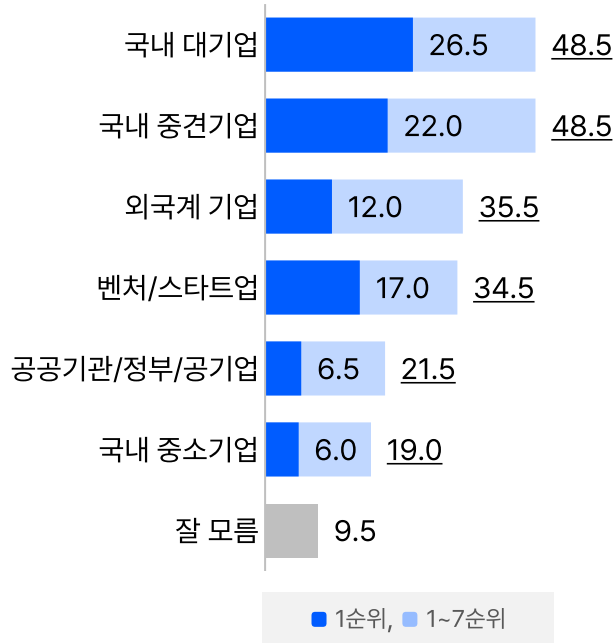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향후 이직 시 금전적 보상 및 안정성이 보장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선호함

스타트업 재직자들이 향후 이직하고 싶은 기업 형태로는 국내 대기업과 국내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꼽힙니다.

국내 대기업은 높은 재정적 보상, 복리/복지 혜택, 연봉 인상률 등 금전적 보상/혜택 측면에서, 중견기업은 복리/복지 혜택, 워라밸 보장 등 안정성 및 근무 환경 측면에서 주로 선호합니다.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조직 형태 별 이직 희망 이유

	전체	이직 희망 조직 형태 (1순위)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Base)	(181)	(53)	(44)	(34)	(24*)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39.8	58.5	40.9	17.6	50.0
복리/복지 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37.6	52.8	50.0	8.8	25.0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29.8	18.9	43.2	14.7	25.0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	27.1	41.5	29.5	5.9	25.0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	23.8	20.8	18.2	35.3	33.3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20.4	5.7	13.6	58.8	12.5
기업/기관 인지도가 높아서	14.4	18.9	18.2	-	25.0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13.8	5.7	6.8	35.3	20.8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11.0	7.5	9.1	14.7	16.7
동료들의 역량이 뛰어날 것 같아서	10.5	13.2	2.3	8.8	25.0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9.9	1.9	4.5	35.3	4.2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성과 평가 기대	8.3	5.7	9.1	8.8	12.5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역할 수행	3.3	3.8	4.5	2.9	-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이직 희망 조직 응답자 (n=181), Unit :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Small Base (n<30) 해석 시 유의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51

Q. 향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해당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후 스타트업 이직 희망 형태

스타트업 간 이직 시, 시리즈 C 이상 대규모 투자 스타트업 및 딥테크 분야 선호가 높음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30.4%가 시리즈 C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희망합니다.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로는 딥테크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소프트웨어/솔루션, 이커머스/유통 업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희망 스타트업 단계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이유 (n=69)

- 성장/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23.9
- 미래/앞으로 유망한 분야라서 14.9
- 안정적이라서 13.4
- 연봉이 높아서 9.0
- 비전/전망이 좋아서 6.0
- 관심 분야라서 6.0
- 일에 따른 성취감, 아이디어 중심의 분야라서 6.0
- 재미/흥미가 있어서 4.5
- 복지가 좋을 것 같아서 4.5
- 연구 성과를 인정해줄 것 같아서 4.5
- 창립 멤버여서 4.5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69)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이직 희망 스타트업 단계 모름 응답자 제외) (n=69), Unit : %]

^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10% 미만 응답 절삭 / 이직 희망 이유 4%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투자 유치 단계의 벤처/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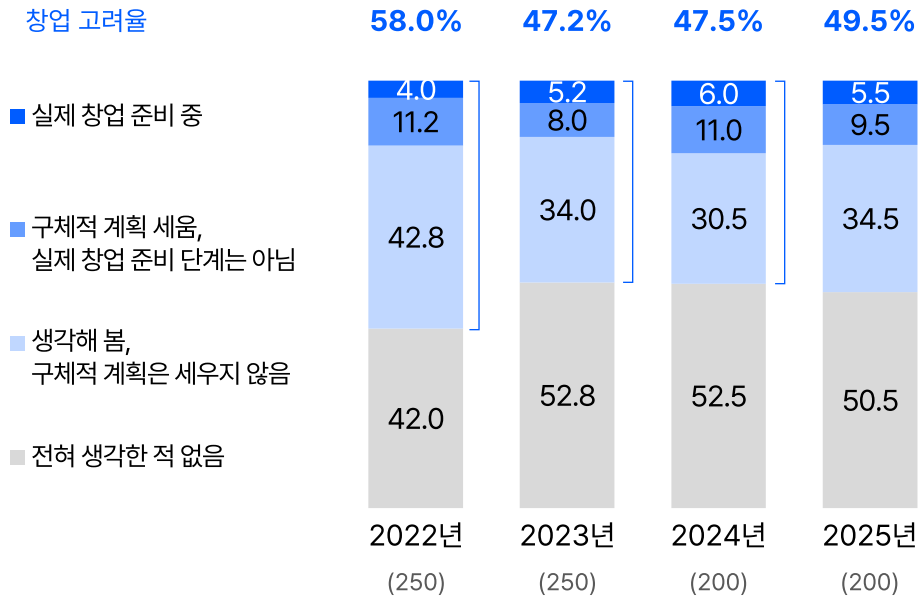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스타트업 재직자의 절반 가량이 최근 1년 내 창업을 고려하였으며, 딥테크 분야 창업 관심이 증가함

스타트업 재직자의 49.5%가 최근 1년 간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딥테크 분야 창업 고려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이커머스/유통, 콘텐츠/미디어 분야 고려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창업 고려 업종 (n=99)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창업 고려자 (n=99),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4%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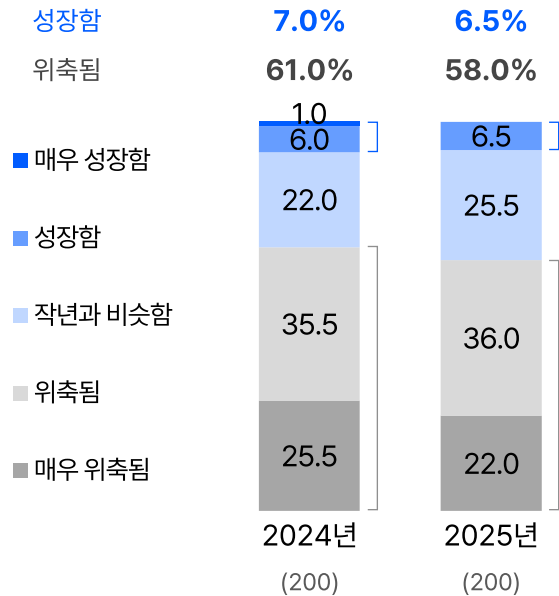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재직자의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 평가는 여전히 높으나 완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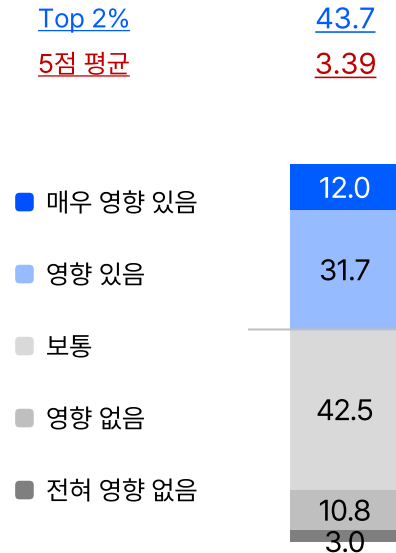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58%가 전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나, 2024년 대비 '위축' 응답은 3%p 감소하며 완화 추세를 보입니다.

투자 시장 비슷/위축 평가자 중 43.7%는 지속 근무 의향에 영향을 받으며, 창업 고려자의 45.9%가 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지속 근무 영향 정도 (n=167)



창업 의향 영향 정도 (n=85)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00) /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비슷 응답자 (n=167) / 창업 고려자 중 투자시장 위축/비슷 응답자 (n=85), Unit : %/5점 평균]

Q. 2024년과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지속해서 근무하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이 귀하의 창업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3. 대기업 재직자

규모 총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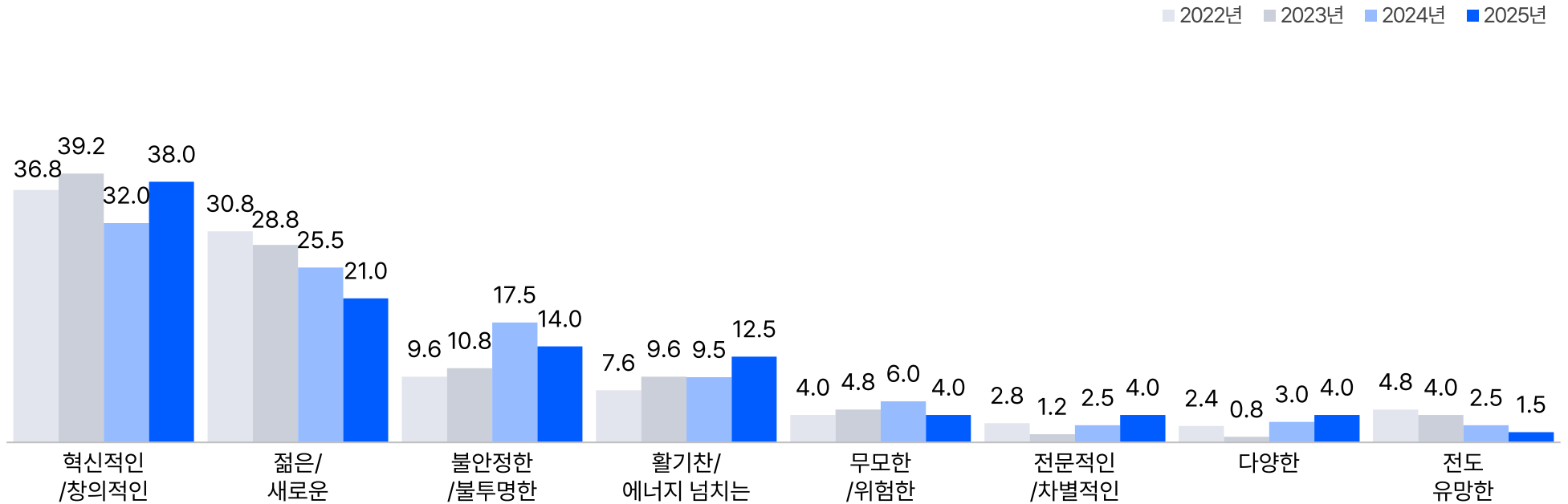
대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대기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이미지에서 '혁신적/창의적', '활기찬/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전환 추세임

대기업 재직자는 스타트업에 대해 '혁신적/창의적인'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젊은/새로운' 이미지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혁신적/창의적', '활기찬/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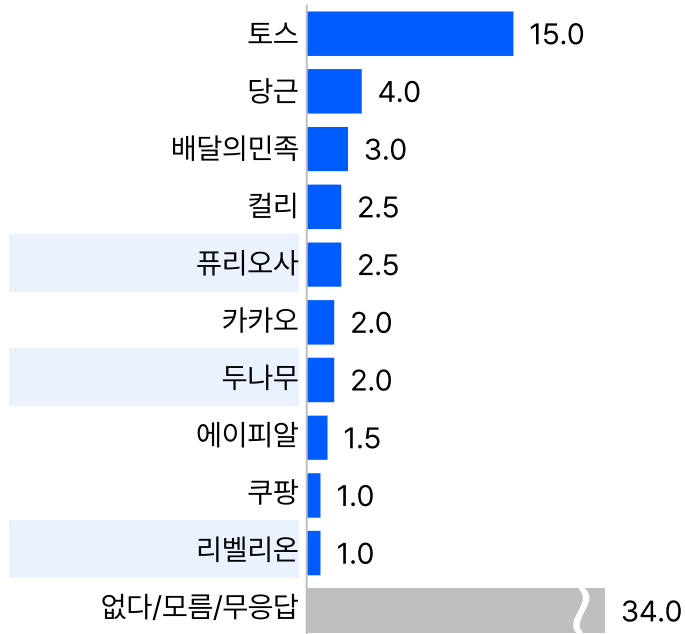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대기업 재직자에게 성장성, 업무 방식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은 '토스'

대기업 재직자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 모두 토스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대기업 재직자 그룹에서도 전년 대비 퓨리오사, 두나무, 리벨리온 등 AI 및 핀테크 관련 기업 응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 일하는 방식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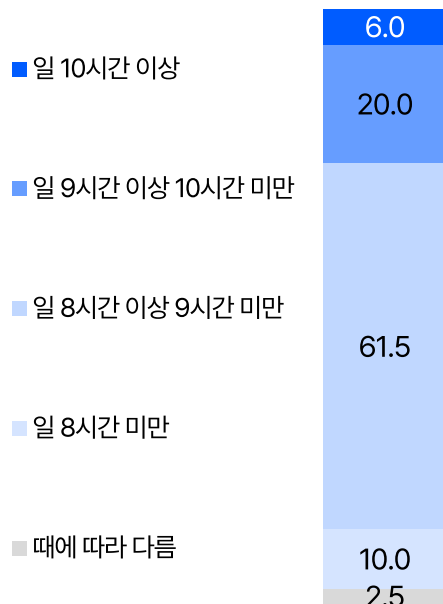
근무 환경

대기업 재직자는 복지 포인트, 식대/간식 지원, 사내 식당,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스타트업 재직자 대비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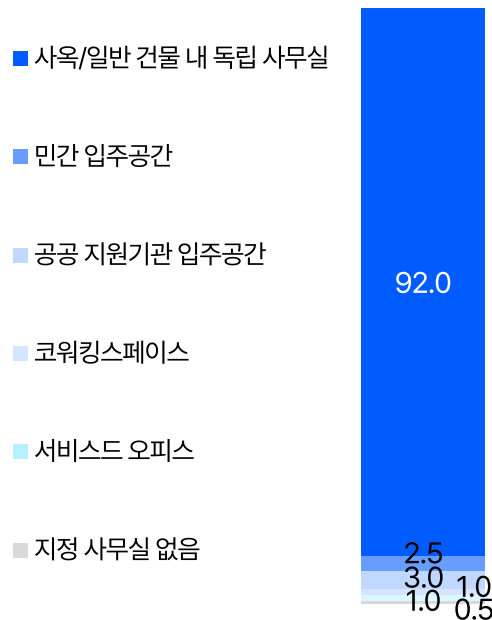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61.5%는 하루 8~9시간 근무하며, 대다수가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율 복장, 복지 비용 지원, 식대/간식 지원, 사내 식당, 탄력근무, 자녀 교육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복지/근무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Q. 재직중인 대기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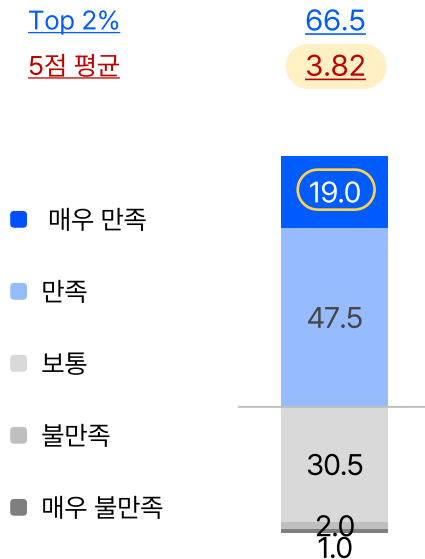
전반적 근무 만족도

대기업 재직자는 복리/복지 혜택, 기업 인지도, 워라밸, 보상 측면에서 전반적 근무 만족도가 높음

대기업 재직자의 66.5%가 대기업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주로 복리/복지 혜택, 높은 기업 인지도, 워라밸, 높은 보상 측면에서 만족합니다.

반면, 연봉 인상률, 유연하지 못한/느린 의사결정 구조는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전반적 근무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Unit : %]

^ 만족/불만족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재직중인 대기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직 관련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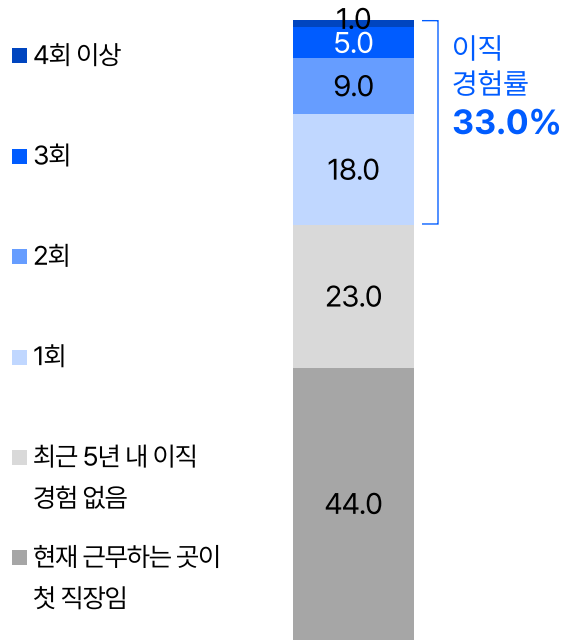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는 스타트업 재직자보다 근속 안정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은 편임

대기업 재직자 3명 중 1명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국내 대기업, 중견 기업에서 이직하였습니다.

44%가 현재 근무하는 대기업이 첫 직장이며, 23%는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없어 스타트업 재직자 대비 근속 유지율이 높습니다.

대기업 이직 시 어려운 점으로는 입사 지원서 작성, 면접 준비, 기업/팀 내부 정보 탐색 측면이 주로 꼽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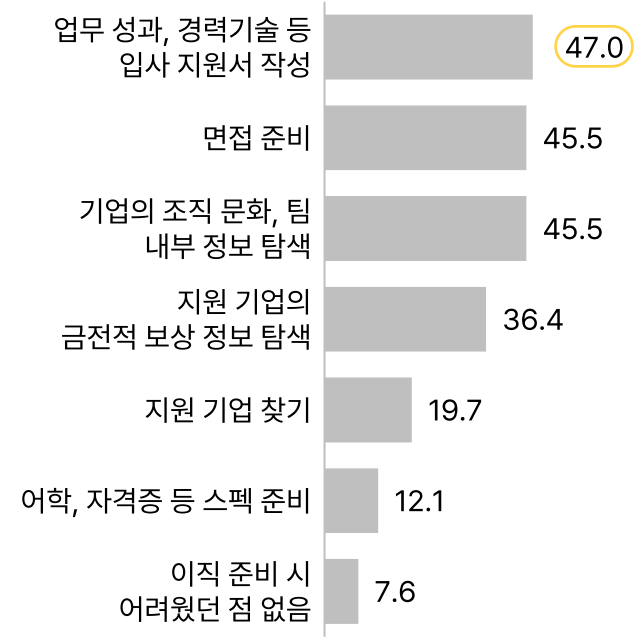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n=66)



대기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n=66)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66),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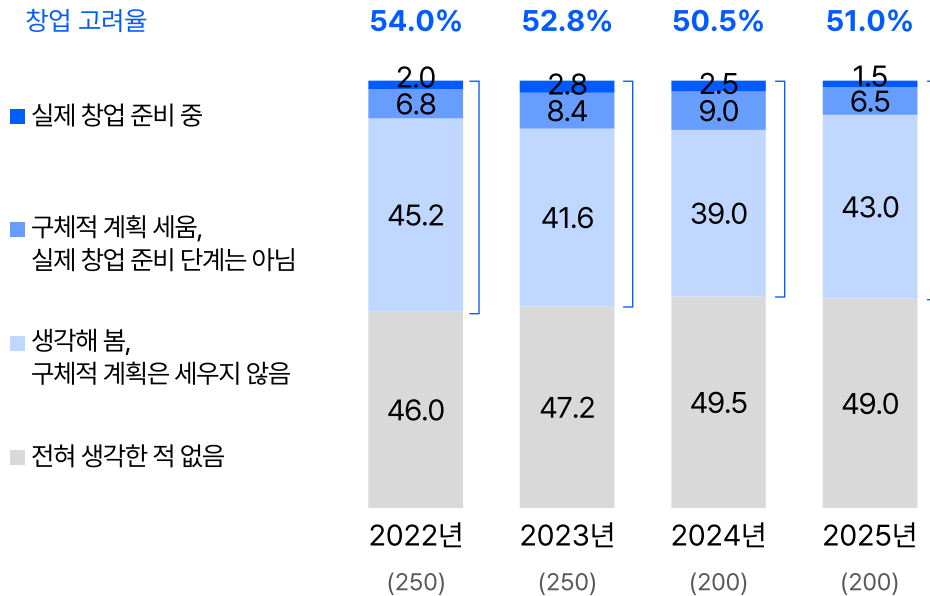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대기업 재직자 절반 가량이 창업을 고려하였으며, 헬스케어/바이오, 교육, 모빌리티, 부동산/프롭테크 분야 관심도 증가함

대기업 재직자의 51%가 1년 간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헬스케어/바이오, 교육, 모빌리티, 부동산/프롭테크에 대한 창업 관심이 증가한 반면, 이커머스/유통, 농식품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창업 고려 업종 (n=102)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창업 고려자 (n=102),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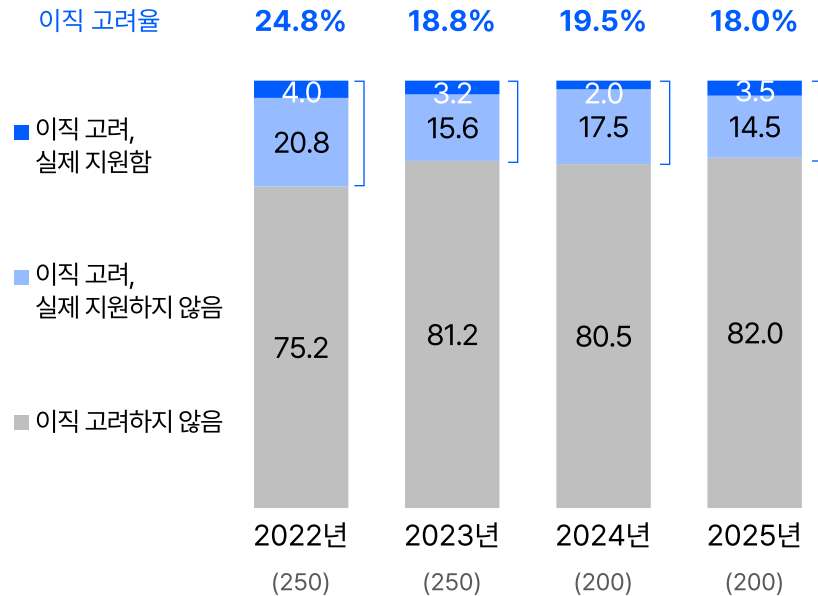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감소했으나, 유연/빠른 의사결정 및 조직문화, 워라밸 측면 매력은 강화됨

대기업 재직자의 18%가 최근 1년 간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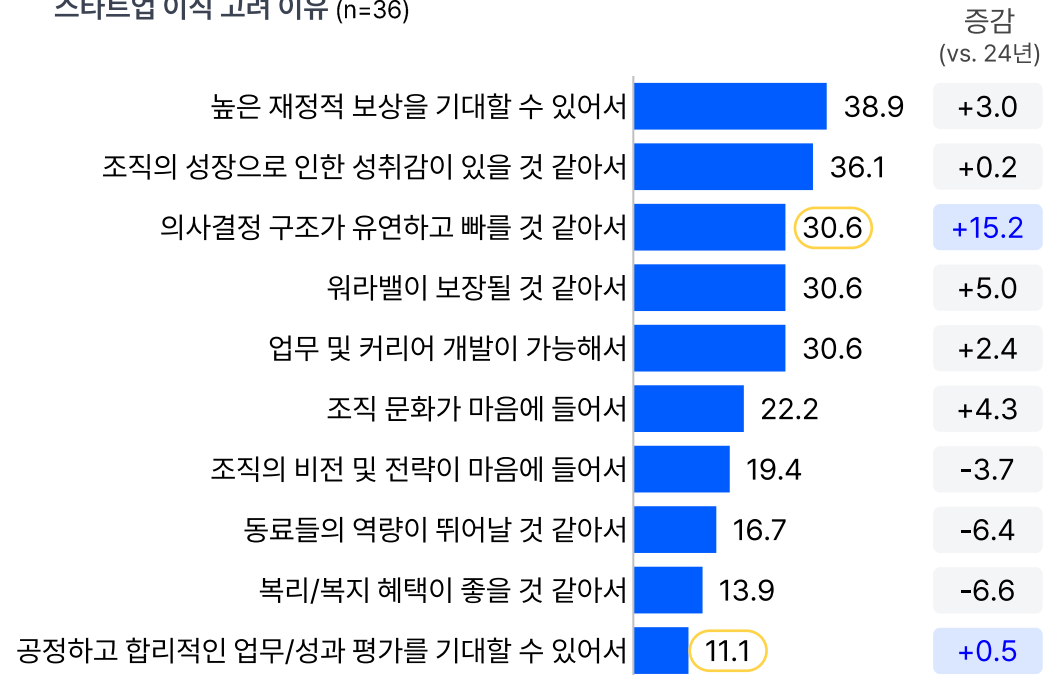
스타트업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재정적 보상,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특히,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워라밸 보장, 조직문화 측면의 강점 인식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스타트업 이직 고려 이유 (n=36)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대기업 재직자 (n=200)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36), Unit : %]

^ 이직 고려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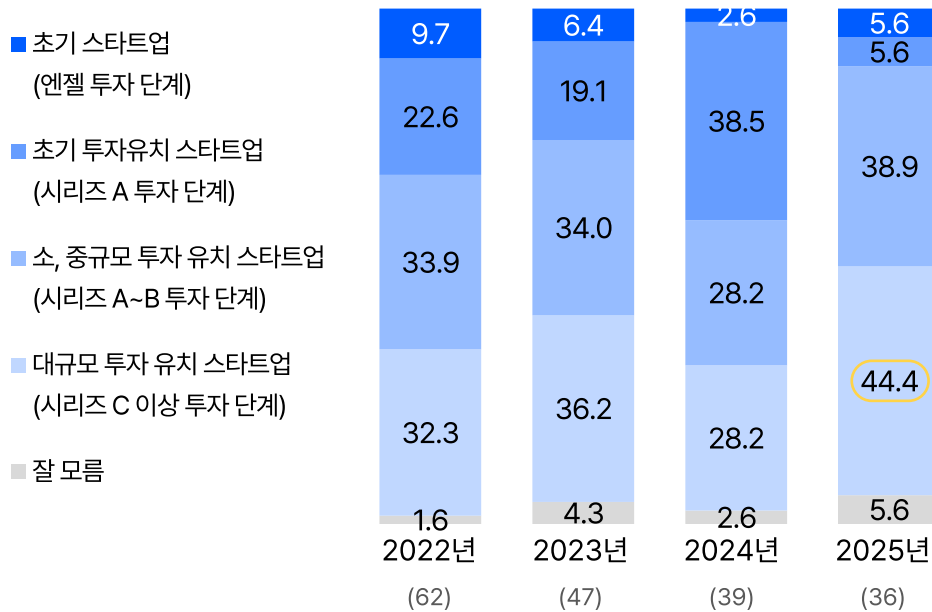
시리즈 C 이상 안정적 스타트업 선호, 딥테크, 헬스케어/바이오 분야 관심도 증가함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대기업 재직자는 주로 시리즈 C 이상(44.4%), 시리즈 A~B 단계(38.9%) 스타트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시리즈 C 이상 스타트업 선호 비중은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로는 딥테크, 금융/핀테크/블록체인, 헬스케어/바이오가 주로 꼽히며, 특히 딥테크 및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36), Unit : %]

^ 이직 희망 분야 10%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이직 비교려 이유

스타트업 이직 기피 요인 중 워라밸 및 재정적 보상에 대한 우려는 전년 대비 완화됨

대기업 재직자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측면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다만,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에 대한 우려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 2024년 대비 증감

[Base: 스타트업 이직 비교려자 (n=164), Unit : %]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4. 취업준비생

규모 총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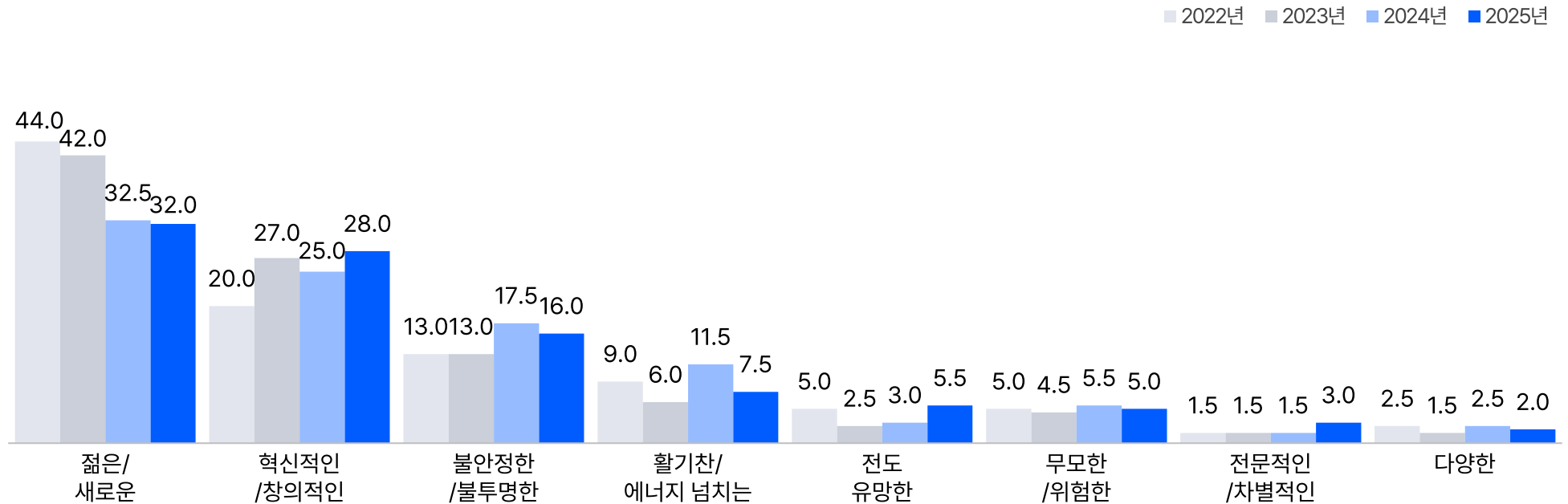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스타트업 이미지

취업준비생에게 '젊은/새로운' 이미지는 감소세이나, '혁신적/창의적' 이미지는 전년 대비 증가함

취업준비생은 스타트업에 대해 '젊은/새로운', '혁신적/창의적인' 이미지를 주로 연상합니다.

'젊은/새로운'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혁신적/창의적' 이미지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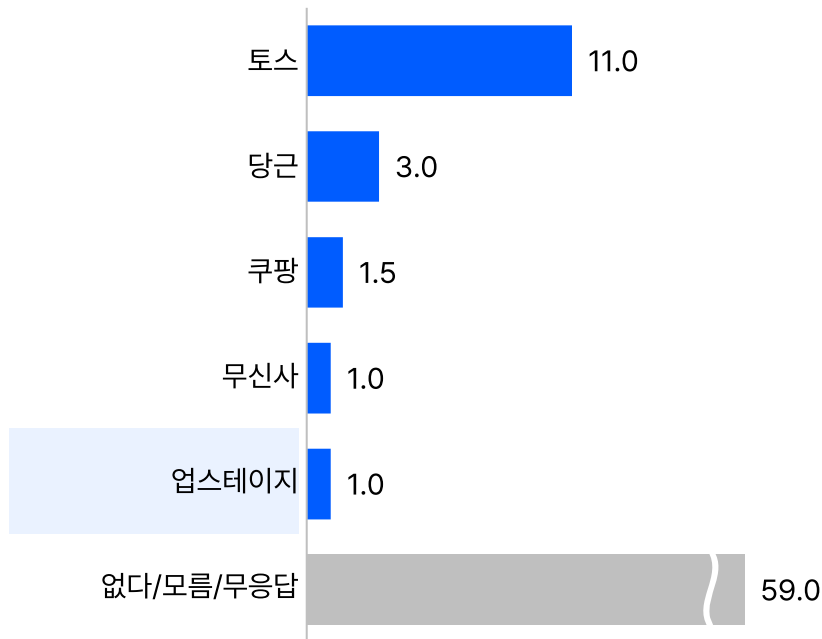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취업준비생에게 '토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일하는 방식이 가장 궁금한 스타트업으로 인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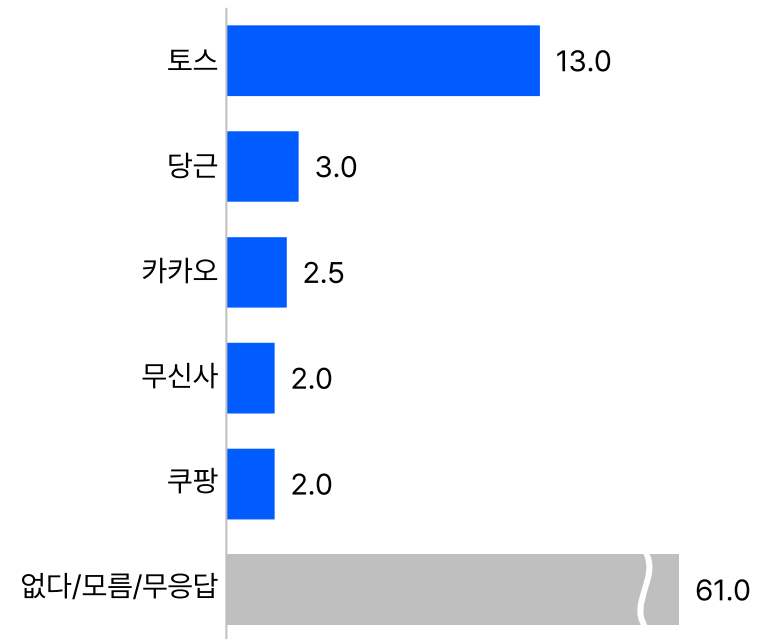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11%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토스를 꼽았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 또한 토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업준비생 그룹에서도 업스테이지와 같은 AI 관련 기업 언급이 확인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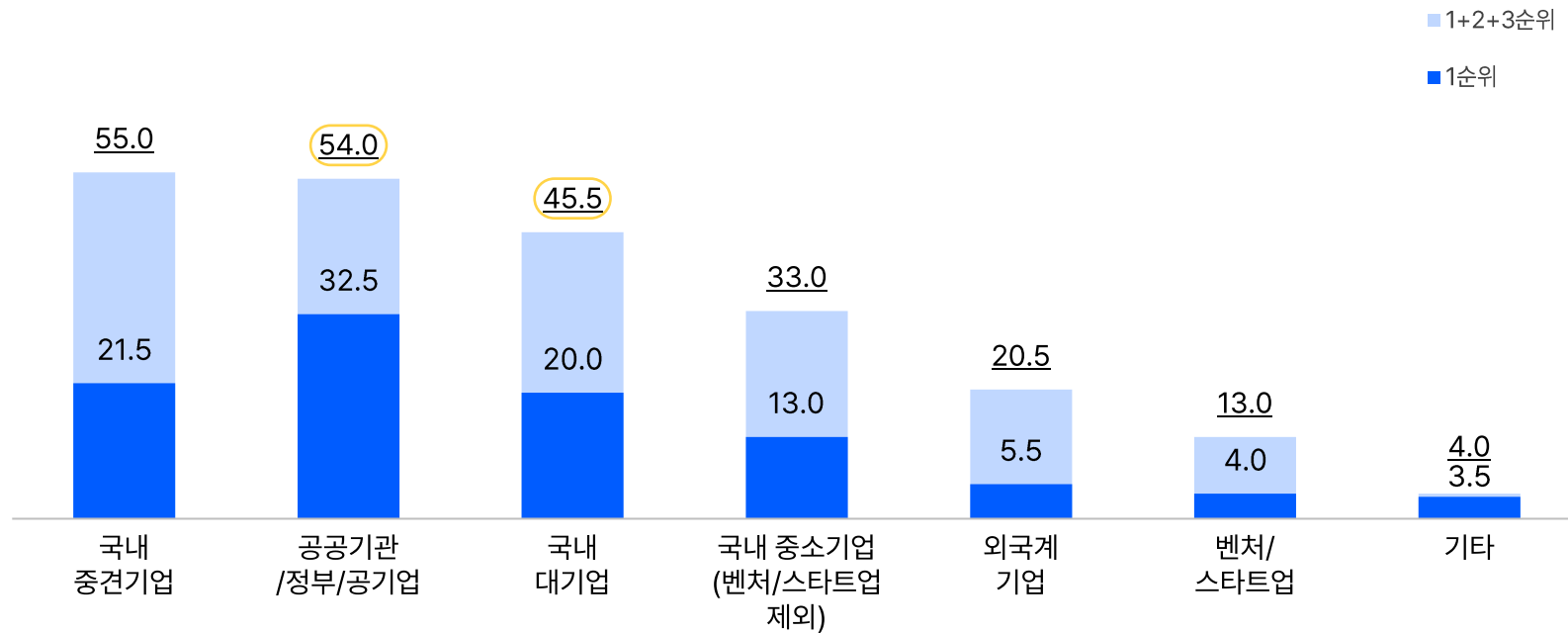
^ 일하는 방식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취업 희망 회사

중견기업·공공기관·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며, 스타트업 취업 희망률은 여전히 낮음

취업준비생은 주로 국내 중견기업, 공공기관/정부/공기업,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며,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4%로 적습니다.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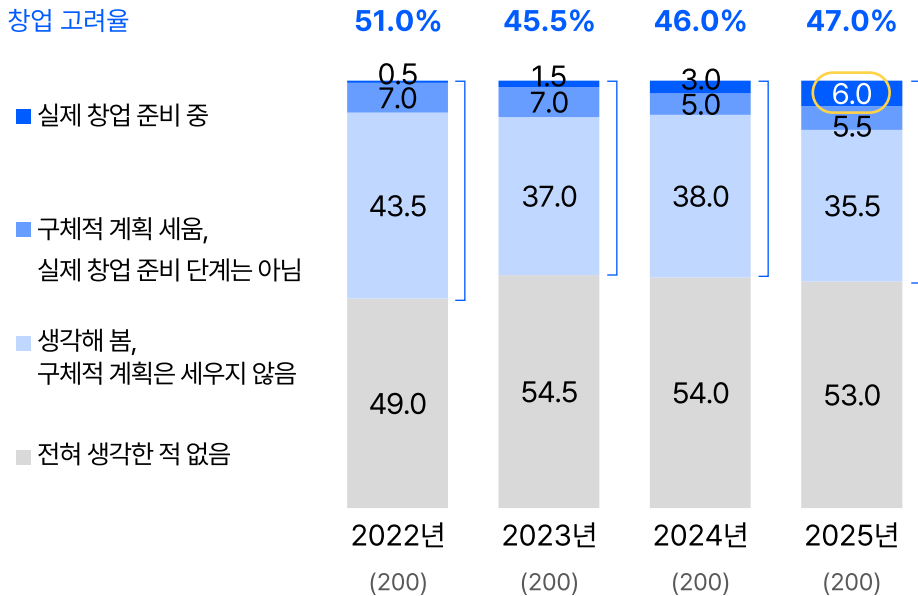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취업준비생의 47%가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콘텐츠/미디어 분야 창업 관심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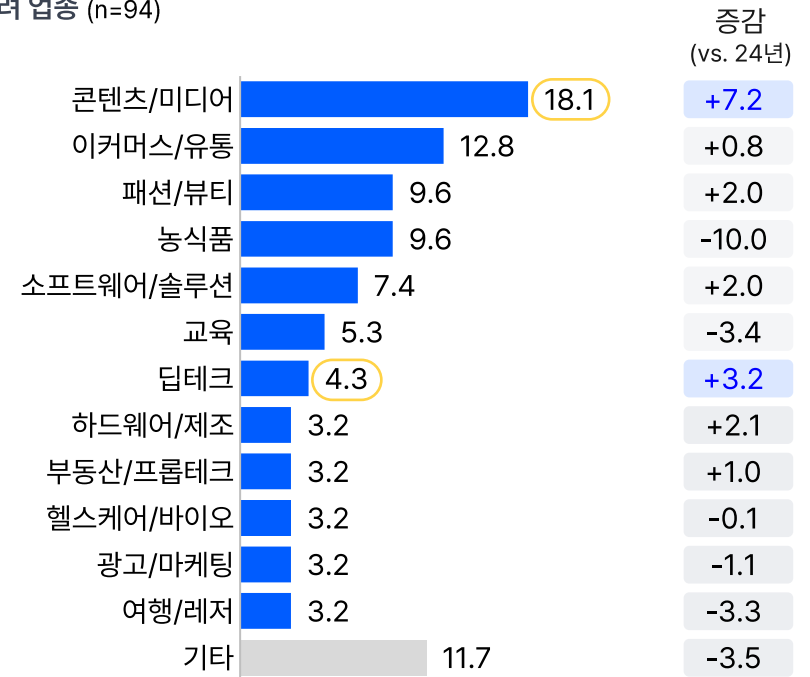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47%가 지난 1년 동안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창업 고려 분야로 콘텐츠/미디어, 이커머스/유통 분야가 주로 응답되었으며, 특히 콘텐츠/미디어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n=94)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창업 고려자 (n=94),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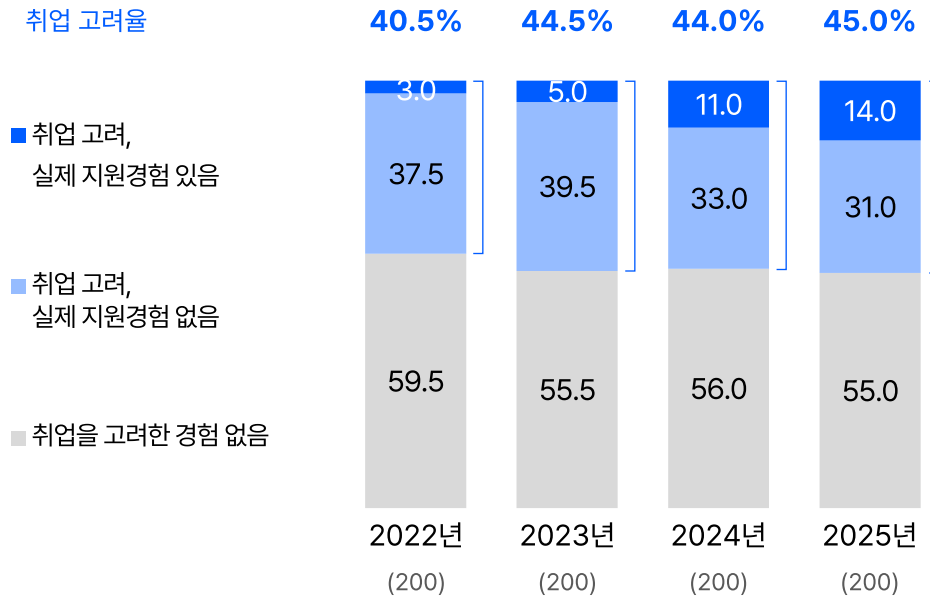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취업준비생 45%가 1년 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였으며, 커리어 개발 가능성·보상·비전 측면의 기대가 확대됨

취업 준비생의 45%가 최근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며, 14%가 실제 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취업 고려 이유로는 워라밸 보장, 업무/커리어 개발 가능, 복리/복지 혜택,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이 주로 응답되었으며, 특히 업무/커리어 개발 가능성, 재정적 보상 기대, 조직 비전/전략 응답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스타트업 취업 고려 이유 (n=90)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낮은 (○) 낮음 (80% 신뢰수준)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90), Unit : %]

^ 고려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고려하셨거나 실제로 지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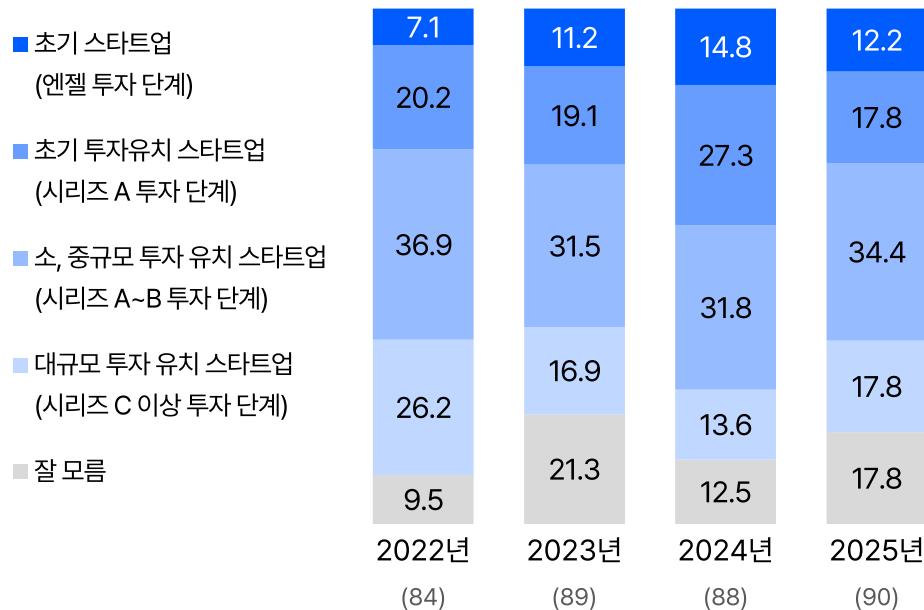
전년 대비 패션/뷰티·광고/마케팅·금융/핀테크/블록체인·헬스케어/바이오·게임 분야 취업 희망 비중이 증가함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의 34.4%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 스타트업을 선호합니다.

취업 희망 분야로는 콘텐츠/미디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패션/뷰티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패션/뷰티, 광고/마케팅, 금융/핀테크/블록체인, 헬스케어/바이오, 게임 분야 스타트업 취업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 (n=90)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90), Unit : %]

^ 취업 희망분야 10%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취업 비교려 이유

취업준비생의 스타트업 주요 기피 이유는 비전/전략 불안정성·워라밸 측면이며, 인지도 및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취업준비생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측면이 응답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낮은 기업 인지도 및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 2024년 대비 증감 / 유의미하게 높은 (+) 증가

^ 2024년 대비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스타트업 취업 비교려자 (n=110), Unit : %]

^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5. [특별 설문] 새 정부 정책 관련 인식

규모 총 400명

대상 창업자, 스타트업 재직자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

새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R&D 예산·혁신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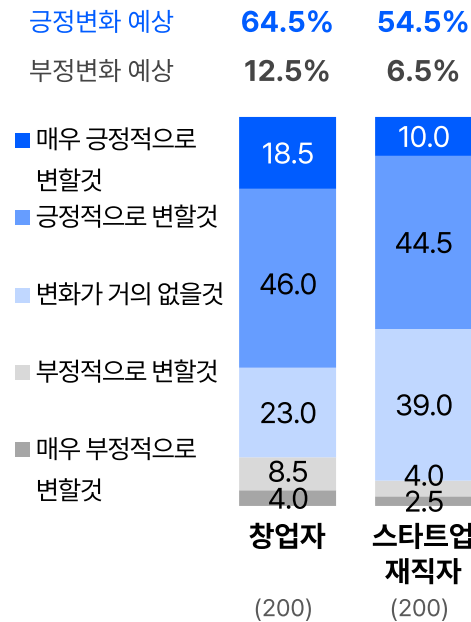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방향성에 대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64.5%, 재직자의 54.5%가 긍정 변화를 예상하여,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대되는 정책으로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AI·딥테크 등 혁신 분야 집중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정책 방향성 설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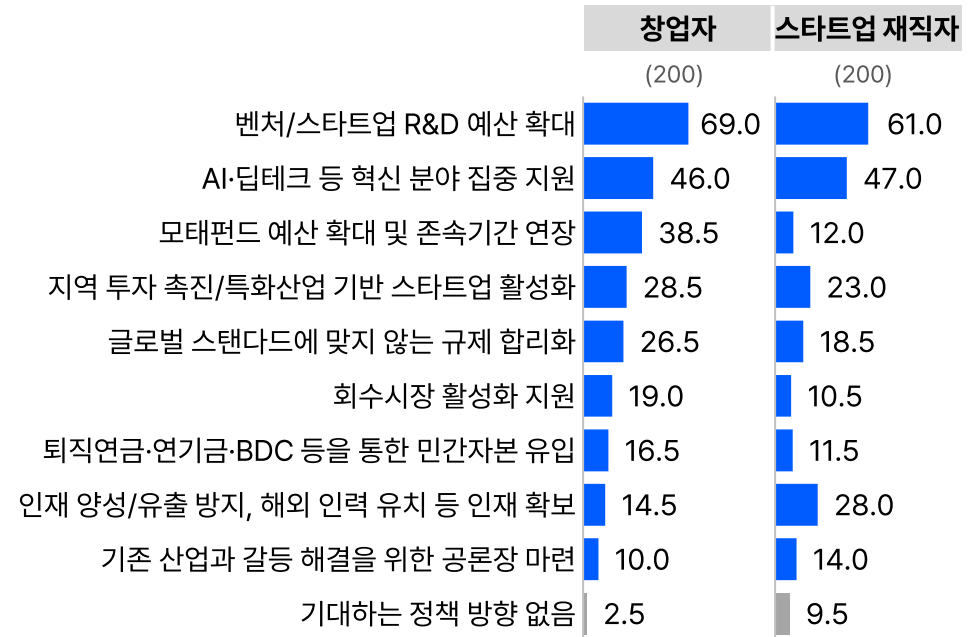
2025년 6월 출범한 현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 첨단소재·기후·바이오·콘텐츠 등 혁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확대를 통한 투자 기반 강화,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지역 특화산업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



기대되는 스타트업 정책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창업자 1+2+3순위 기준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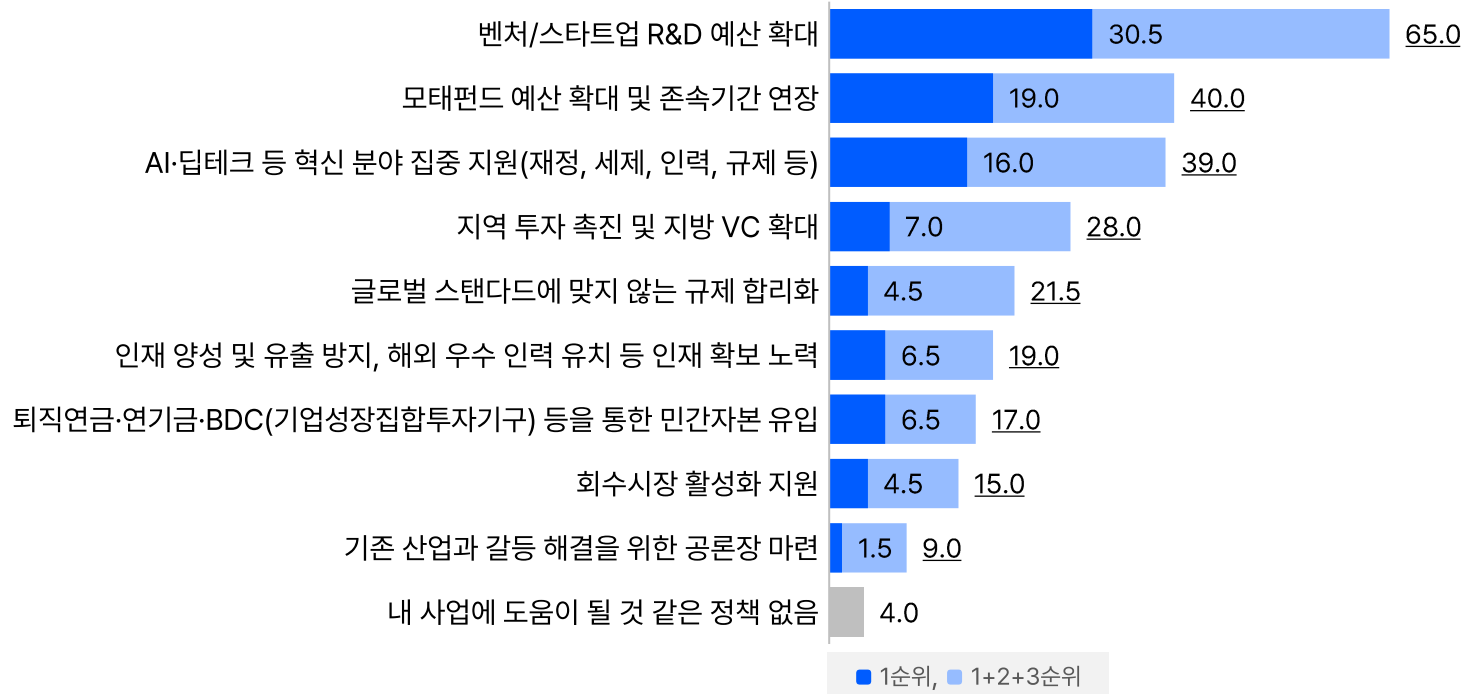
Q. 25년 6월 출범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 고려 시, 향후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창업자]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 평가

스타트업 창업자는 R&D 예산 확대가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스타트업 창업자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가장 도움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AI·딥테크 등 혁신 분야 집중 지원이 주요 기대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정렬

Q.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에서 귀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추가 지원 요구 사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투자 활성화·자금 지원과 더불어 고른 지원 분배를 기대함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새 정부에 기대점으로 창업자와 재직자 모두 투자 활성화 및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된 투자 지양을 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자금 유입이 핵심 성장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기보다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창업자] 새정부 추가 지원 요구사항

• 투자 활성화(기술 등)	15.0	• 다양한 정책 지원	3.0
•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14.0	• 펀드 활성화(모태펀드 등)	3.0
•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 투자 지양	13.5	• 정부 주도 탈피/서포트 역할 충실	2.5
• 각종 규제 완화	9.5	• 스타트업 진출 실패기업 대상 지원	2.5
• 우수인재 유치	5.5	• 엄격하고 투명한 선정심사	2.0
• 실무적이고 적절한 정책 지원	4.0	• AI 산업 적극 지원	2.0
• R&D 투자예산 확대	4.0	•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	2.0
• 유연한 고용환경 필요	3.5	• 글로벌/해외판로 지원	2.0

[스타트업 재직자] 새정부 추가 지원 요구사항

•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14.0	• 엄격하고 투명한 선정심사	3.0
• 투자 활성화(기술 등)	9.5	• 급여 지원	3.0
•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 투자 지양	7.5	• 다양한 정책 지원	1.5
• 실무적이고 적절한 정책 지원	5.5	• 정부 주도 탈피/서포트 역할 충실	1.0
• 각종 규제 완화	4.5	• 스타트업 진출 실패기업 대상 지원	1.0
• R&D 투자예산 확대	4.5	• AI 산업 적극 지원	1.0
• 다양한 국책과제 활성화	3.5	•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	1.0
• 우수인재 유치	3.0	• 글로벌/해외판로 지원	0.5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00), Unit : %]

^ 창업자 2%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성장하려면, 새 정부가 어떤 점을 더 보완하거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opensurvey

**‘데이터의 새로운 미래’,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

오픈서베이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까지 오픈서베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민간비영리기관입니다.**

창업가 및 생태계 구성원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국내외 생태계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 균형잡힌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서치 활동 등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tart-up Trend Report 2025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본 리포트는 모바일 리서치 플랫폼사인 오픈서베이와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 스타트업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공동 발행합니다.

리포트 담당업무 범위

오픈서베이: 프로젝트 설계,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설계, 최종 보고서 감수

리멤버: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Pool 제공